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중국 상권에게 보스톤 한인 상권 밀리나

한류 등 영향으로 중국인들 보스톤 인근 한인 업소에 관심증대  
SBA 대출 까다로운 레스토랑 소자본 한인들 선뜻 투자 꺼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 한인 상점들이 적당한 한인 구매자를 찾기 어려워 점차 중국인들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최근들어 별링톤 H마트의 푸레쥬르, 올스톤의 PC 카페, 뉴튼 센터의 사뵤로 등의 업체가 모두 중국인들 손에 넘어갔다.

별링톤 소재 H마트 안에 위치한 빵집 푸레쥬르는 지난 7월경 중국인이 인수해 운영되고 있다. 푸레쥬르의 상호와 메뉴 등은 바뀌지 않았으며 직원들과 매니저는 아직까지 한인들이 맡아 일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한인 주인이 운영하지 않는 곳이 됐다.

이처럼 한인업소가 중국인 주인들 손에 넘어가는 이유는 중국인들의 한류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었고 한인들보다 더 풍부한 자금력으로 한인 상점구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부동산 백영주 대표는 “중국인들이 한류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몰두하면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올스톤에 유일하게 위치한 PC



최근 별링톤 소재 H마트 안에 위치한 빵집 푸레쥬르는 지난 7월경 중국인이 인수해 운영되고 있다

Café 또한 중국인(대표 마크 친)에게 인수됐다. PC Café는 한인 유학생들이 모여 컴퓨터 게임과 음식을 먹으며 놀던 하버드 예비뉴의 피씨방이었다. 친 사장은 “더 이상 피씨방이 아닌 카페에 초점을 맞춰 대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실 올스톤의 PC Café는 1년넘게 부동산 매장에 나와 있었지만 한인 구매자를 찾지 못해왔다. 이처럼 한인 구매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피씨방 식당보다는 세탁소 같은 업종

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경해 부동산(Lee Associates)의 이경해 대표는 “한인들은 SBA 대출이 가능한 세탁소에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며 “식당 업계는 크게 꺼려한다”고 전했다.

최근 뉴튼센터(81 Union St) 소재 사뵤로(대표 이상우)도 지난 8월부터 중국주인을 맞아 운영되고 있다. 사뵤로 또한 한인 구매 대상을 찾지 못해 중국계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업소들이 한인 업소 구매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선 작은 한인 타운이라고 불리는 올스톤 하버드 예비뉴 진출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토토 라면, 인퓨전 티 스톱, 말라, 사부젠, 아시아나 스시, 믹스 프로즌 요거트 등이 모두 중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들이다. 대부분 이들은 최근 2년에서 4년 안에 생겨난 업소들이다. 중국업소들이 늘어나면서 하버드 예비뉴에서는 대부분 한인업소들에서도 중국 손님비율이 상당히 높다. 거리의 중국인 유학생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더글라스 폴 부동산의 헤더 킴 대표도 중국인들이 많아졌으며, 중국계 출자 전화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jham@bostonkorea.com

### 보스톤 시청에 태극기가 휘날린 날



보스톤 시청부는 10월 9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해 보스톤 시청 광장에서 한국 국기제양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10월 9일을 한국의 날로 선포했다

▶ 관련 기사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각·무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jlaw.com

From \$940  
ONLY 1 STOP (디트로이트 경유)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위의 요금은 델타항공 요금입니다.  
2015년 11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에 한해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또한 발권일은 10월 30일까지이며, 예약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445.1587  
juno@selamirealty.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 보스톤 한국의 날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최초로 대한민국 태극기가 보스톤 시청 광장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보스톤 시청 정부는 지난 20일, 10월 3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해 보스톤 시청 광장에서 한국 국가계양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10월 3일을 한국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엄성준 총영사를 비롯해, 김경원 한인회장, 다니엘 고 보스톤 시장(마틴 워시) 보좌관, 미셸 우시위원, 티토 잭슨 시위원, 크리스티 리 한인 아나운서(NECN) 등이 참여했다. 시청 광장 앞에는 보스톤 한인회, 민주평통, 한인노인회, 시민협회, 국제선가정선교회 등에서 80여 명의 한인들이 한국의 날을 기념하여 참가했다.

한국의 날 행사는 NECN 뉴스의 아나운서 크리스티 리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보스톤 챔버의 연주와 함께 엄성준 총영사와 김경원 한인회장이 태극기를 계양하였다. 엄성준 총영사는

한국이 일본에서부터 해방되어 오늘 보스톤에 한국의 날이 생겨지기 까지의 한국의 역사와, 한미관계와 동맹의 친밀함과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고 전했다.

김경원 한인회장은 “매사추세츠주의 슬로간인 The Spirit of America처럼 매사추세츠주가 한인들 역시 꿈과 희망을 깨닫게 해준 곳이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자녀 교육과 사회 후원으로 책임감을 실현할 것이다. 보스톤 시청 부에게 한국의 날을 지정해 준 점에 감사하다” 는 말을 전했다. 이어 다니엘 고 보좌관은 “한국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오늘 같은 날에 참여한 것이 영광이다” 고 말했다. 이어 미셸 우시위원, 티토 잭슨 시위원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축사 후에는 티토 잭슨 시의원이 한국의 날 선언문을 참석한 한인들과 함께 읽은 후 ‘보스톤 한국의 날’ 선언문을 엄성준 총영사와 김경원 한인회

장에게 각각 한 부씩 전달했다.

한국의 날 선언문 전달 후에는 한유정씨가 아름다운 장구 춤으로 국가계양식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한인뿐 아니라 주변 미국인들도 함께하여 보스톤 시 한국의 날을 함께 축하했다.

한인 참전 용사 게라드 조셉슨씨는 “한국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분이 따뜻하다” 며 “오늘 같은 날은 모두 모여 함께 기념하며 즐겨야 한다” 고 말했다.

국가 계양식 후에는 시청 홀에서 만찬이 이뤄졌으며 김윤선씨가 ‘그리운 금강산’ 을 제창하였다. 만찬에는 잭슨 시위원은 김 회장과 오랜동안 친한 관계 이야기가 전해졌으며 다시 한번 한인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아나운서 크리스티 리는 오늘 한국의 날 기념식이 있기까지 큰 힘을 다한 민주평통 김현주 부간사에게 큰 박수와 감사를 전했다.

한국 국기는 23일까지 계양되어 있을 예정이다. ham@bostonkorea.com

##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날 기념식



엄성준 주보스톤총영사와 김경원 보스톤한인회장이 함께 태극기를 올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엄성준 총영사를 비롯해, 김경원 한인회장, 다니엘 고 보스톤 시장(마틴 워시) 보좌관, 미셸 우시위원, 티토 잭슨 시위원, 크리스티 리 한인 아나운서(NECN) 등이 참여했다



시청 광장 앞에는 보스톤 한인회, 민주평통, 한인노인회, 시민협회, 국제선가정선교회 등 80여 명의 한인들이 한국의 날을 기념하여 참가했다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물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고 그리고 스킨케어**

##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대리 스트라이프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펄 & 셋팅 펄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론 펄	Iron Perm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에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에니큐어 & 피디큐어	Manicure & Pedicure
확실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샵

##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문화식물원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날 기념식



한국의 날을 맞이해 한인이 보스턴 시청사 앞에서 태극기를 휘날리고있다



국기 게양식 후 시청 홀에서 교제 시간을 가졌다



김경원 보스턴한인회장과 유영심 보스턴한미노인회장이 포즈를 취하고있다

보스턴 시청 광장 가운데 태극기 게양돼  
한인들 태극기 흔들며 한국의 날 기념해  
다니엘 고, 티토 잭스, 미셸 우, 크리스티 리 함께 축하



민주평통 김현주 부간사는 한국의 날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한유정씨의 아름다운 장구 춤으로 국기게양식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오찬에 전시된 윤미자씨의 종이접기 작품들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Fall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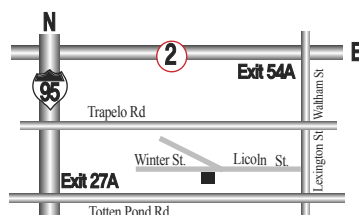
Starting September 12, 2015

Class	Time
PSAT / SAT Prep ( New )	9:00 AM – 11:00 AM Saturday
SAT Prep ( Old )	1:00 PM – 3:00 PM Saturday
PSAT /SAT Prep	3:30 PM – 5:3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2: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	--------------------------------------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매사추세츠 헬스 커넥터는 지난 22일 오전 9시 30분 도체스터소재 '데일리 테이블' 에서 올해 접수신청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매사추세츠 헬스 커넥터 오는 11월부터 신청접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2016년 매사추세츠 헬스 커넥터 접수 신청이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매사추세츠 헬스 커넥터는 지난 22일 오전 9시 30분 도체스터소재 '데일리 테이블' 에서 올해 접수신청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매스헬스커넥터 총 책임자 루이스 귀티레즈(Louis Guitierrez), 매스헬스 커넥터 커뮤니케이션 담당 제이슨 레퍼레츠(Jason Lefferts)와 보스톤 퍼블릭 헬스 커미션 전무 휘 우엔(Huy Nguyen), 베트남 아메리칸 시민 협회 이사 뚜안 트랜(Thuan Tran), 헬스워크 커뮤니티 피트니스 총지배인 깁스 산더스(Gibbs Saunders) 등이 참여해 매스헬스커넥

터 접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매스헬스커넥터 총 책임자인 귀티레즈씨는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에서 보험자들이 가장 많은 주 중 하나이다"라며 "%3.3 거주자들이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우엔씨는 "영어가 안 돼 접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617-534-5050을 통해 원하는 언어로 접수가 가능하다"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 단계씩 가르쳐 줄 수 있는 Navigator 프로그램 또한 제공된다"고 말했다.

뚜안 트랜씨는 "보험 접수의 푸드 스탬프 등 영어가 불가능한 분들도 도와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레퍼레츠씨는 "늦게 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준비를 해 보험 신청을 하

를 부탁한다"며 "매사추세츠주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는 세금 보고 할 때 벌금이 가해진다"고 덧붙였다.

레퍼레츠씨는 "플랜은 종류별로 각각 다르지만 매스헬스커넥터의 보험은 매달 평균 \$100 이하이며 공제 없이(No Deductible) \$10~15의 코페이(Copay) 옵션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매사추세츠 주 거주자 어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매스헬스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MAhealth-connector.org)에서 알아 볼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해 (mayorshhealthline@bph-c.org) 궁금한 점을 문의 할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

## 스미스 칼리지 채플 초청 목회자 선교미션 투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지난 10월 19일 월요일 스미스 칼리지(Smith College) 교수실에서 뉴잉글랜드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한 '하이 티 타임' 이 진행되었다.

강덕식 회장을 비롯한 목회자들은 미국 종교개혁의 중심들과 큰 변화를 일으켰던 신앙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순례하는 선교투어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신앙개혁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대각성 회개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에드워드 교회를 방문했다. 이어 마운트 헐먼의 신앙가 무디선생의 고택을 방문하여 뉴잉글랜드 지역의 뿌리 깊은 역사를 확인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원 보스톤 한인회장이 점심을 후원해 지역 목회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10월 19일 월요일 스미스 칼리지 교수실에서 뉴잉글랜드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한 '하이 티 타임' 이 진행되었다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5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제 1회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남궁연 전 한인회장이 호선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윤미자씨, 간사에는 오진관 영사, 서기에는 김범준씨가 임명되었다

## 보스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선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지난 16일 금요일 주 보스톤총영사관에서 내년 2016년 4월 13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대비해 보스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임명 및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보스톤 재외선거관리위원으로는 남궁연 전 한인회장, 윤미자 전 교사협의회 회장, 오진관 영사, 장은정(새정치민주연합 정당추천위원)씨가 엄성준 총영사로부터 선거 관리위원 위촉장을 전달 받았다.

위촉식 후에는 제 1회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남궁연 전 한인회장이 호선 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윤미자씨, 간사에는 오진관 영사, 서기에는 김범준씨가 임명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남궁연 위원장은 “

보스톤은 지난 18대 대선 및 19대 총선에서 미주 최고의 유권자 등록율과 투표율을 기록한 도시이다” 며 위원장으로서 내년 제 20대 총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언론들의 다각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한편 오진관 간사는 지난 대선과 총선때와는 달리 선관위에서 정식 직원이 보스톤에는 파견되지 않은 만큼 우리 선관위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임을 전제한 후 공직선거법이 많이 바뀌어 유권자 우편등록은 물론 인터넷 등록(신고, 신청)도 허용된 상태라며 이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설명했다.

jham@bostonkorea.com

## 2015 NE 성대동문회 및 부부동반 골프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보스톤 성균관대 동문회(회장 김성균)가 지난 17일 토요일 린필드 소재 Sagamore CC 에서 부부동반 골프대회 겸 정기 모임을 가졌다.

이날 남성부 우승은 서재교 동문, 여성부는 한해경(강세현 동문 부인)이 차지했다. 이어 정기모임 및 저녁만찬이 김 회장 자택에서 거행했다.

이번 동문회의 신입회원으로 이

인숙 (법정대 정치외교학 70학번) 동문이 소개되었고 성균관대학교의 캠퍼스 소식, 학교의 역사 등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뉴잉글랜드 성대 동문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김성균 회장 (이메일: info@songkkim-law.com 전화: 781-438-6170)으로 연락할 수 있다.

성균관대 동문회는 정기모임 외 부부동반 골프대회 등 행사들로 꾸준한 모임을 가져오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보스톤 성균관대 동문회가 지난 17일 토요일 린필드 소재 Sagamore CC 에서 부부동반 골프대회 겸 정기 모임을 가졌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괏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왼쪽부터) 김민 음악감독,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 메조 소프라노 칼리 파울리

## 서울 바로크 합주단 보스턴 온다

### 창단 50주년 월드투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서울바로크합주단이 오는 31일 토요일 오후 8시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조단홀에서 열린다.

서울바로크합주단은 올해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미국 투어를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미국에 알리며 민간 문화 외교를 실천하고 있다. 서울바로크합주단은 고(故) 전봉초 서울대 음대 교수에 의해 창단되어 지휘자 없는 챔버오케스트라로서 음악과 연주력 하나로 50년간 131회 한국과 해외에서 총 557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하고 있는 악단이다.

바로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현재까지 총 17장의 CD를 발매함으로써 한국 레코딩의 수준향상과 클래식 인구조변 확대의 선봉에 서왔다.

특히 199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외공연은, 파리 '유네스코 평화의 콘서트', 뉴욕 '유엔 스타프 데이 콘서트', 한국 연주단체 최초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챔버홀 공연, 핀란드 난탈리 페스티벌, 독일 라인가우 페스티벌, 폴란드 베토벤 페스티벌 등을 비롯해 크로아티아, 러시아, 덴마크, 체코, 오스트리아,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을 망라하며 23개국, 125회의 해외초청공연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챔버 오케스트라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번 보스턴의 유서 깊은 조단홀에서의 연주는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조 소프라노 칼리 파울리가 솔리스트로 참여하여 서울바로크합주단과의 하모니를 들려줄 예정이다. 유네스코 소속의 아티스트 Ino Mirkovic가 '유네스코 창단 70주년'을 기념하며 협연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바로크합주단의 상반기 유럽투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현지

서도 청중을 열광시키며 카리스마를 발휘한 한국의 자랑스러운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이 피아졸라(A. Piazzolla)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Four Seasons of Buenos Aires)로 서울바로크합주단과 함께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티켓은 좌석 등급에 따라 \$22~52이며 조단홀 박스오피스나 인터넷 (<http://www.tix.com/Event.aspx?EventCode=784647>)으로 구매 가능하며 연주회 문의는 [boxoffice@necmusic.edu](mailto:boxoffice@necmusic.edu) 또는 617-585-1260으로 하면 된다.

### 행사일정

날짜 : 2015년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8시

장소 :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조단홀 New England Conservatory Jordan Hall (30 Gainsborough St, Boston, MA 02115)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한인 교포 감독 영화 '서울서칭' 보스턴 상영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함요한 기자 = 한인 재미교포 2세 벤슨리(Benson Lee) 감독이 제작한 영화 '서울서칭(Seoul Searching)' 이 지난 22일 목요일 보스턴 아시안 아메리칸 필름 페스티벌(BAAFF)을 통해 캠프리지 소재 Brattle Theatre에서 상영됐다.

'서울서칭'은 미국, 독일, 멕시코 등에서 태어난 해외한인 자녀를 대상으로 모국의 역사와 문화 체험을 위해 1986년에 한국 정부가 주최한 서울 여름학교에 참여한 10대의 재미교포 소년소녀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서울서칭'은 영화배우 차인표, 저스틴 전, 제시카 반 등 아시안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이다.

보스턴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

제는 보스턴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행사이며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까지 Paramount Center (Emerson College, Boston)와 Brattle Theatre에서 개최된다.

보스턴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제에서는 '서울서칭'에 이어 24일 아서 동(Arthur Dong)감독의 'The Killing Fields of Dr. Haing S. Ngor'와 25일 미라심한(Meera Simhan) 감독의 '미스인디아 아메리카(Miss India America)'의 상영이 이어진다.

보스턴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제에 자세한 정보는 [baaff.org](http://baaff.org)와 BAAFF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ev-ents/1672-546092989552](https://www.facebook.com/ev-ents/1672-5460929895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스턴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

[jham@bostonkorea.com](mailto:jham@bostonkorea.com)



벤슨리 감독 연출의 영화 '서울서칭'은 영화배우 차인표 외 저스틴 전, 제시카 반 등이 출연한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http://www.utsboston.net)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한미문화재단이 지난17일 토요일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보스톤 한인교회 ECC건물에서 가을 연주회를 주최했다

# 보스톤 한미 문화재단 갈라 콘서트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미문화재단 (KACF: Korean American Cultural Foundation of Greater Boston 이사장 김문소)이 지난17일 토요일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보스톤 한인교회 ECC건물에서 주최한 가을 연주회가 약 80여명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마을 거리에서 (At the Village Crossroads)” 라는 주제로 “서양과 동양의 음악과 휴식이 만나는 밤(An Evening of Eastern and Western Music and Desserts)” 의 제목으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마이클 토마스 푸마이 (Michael-Thomas Foumai)의 보스톤 프리미어 빌리지 뮤직 (Boston Premier of Village Music)의 현악 공연으로 가야금, 판소리, 클라리넷,

첼로, 바이올린 등이 연주됐고 화음 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와 브로드웨이 투 보스톤(b2b Theatre)의 피쳐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의 1부 공연으로는 가야금의 김도연 (Do Yeon Kim), 클라리넷의 조단비 (Danbi Cho), 바이올린의 고은애 (Eunae Koh), 첼로의 권현지 (Hyun-ji Kwon) 등의 정상급 연주자들과 화음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박진욱, 대표: 장수인)가 감미로운 음악을 선사했다. 보스톤한미문화재단은 공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웹사이트 (<http://www.koreanculture-boston.org/>)를 통해 공연의 동영상 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문태국 겸손한 음악가가 되고싶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한 첼리스트 문태국씨의 연주회가 지난 16일 금요일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세인트폴 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첼리스트 문태국과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 김상영이 공동으로 연주했다.

이날 연주회의 첫 곡으로는 가을의 정취가 풍겨나는 슈베르트 작곡인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아르페지오네’ 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드뷔시의 후기 작품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의 연주로 드뷔시 특유의 멜랑콜리한 음색을 세련된 감성으로 섬세하면서도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특히 마지막 악장의 빠르고 현란한 테크닉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피아니스트 김상영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이 곡의 영감이 된 스페인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내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곡, 폴랑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Op. 143’ 를 연주해 애절한 멜로디를 들려주었다. 특히 이 곡에서 첼로와 피아노가 고도로 집중하여 연주할 때에는 모두 깊이 집중해 감상하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쇼팽의 명곡 중 하나인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서주와 화려한 폴로네이즈, op.3’ 이 연주되었다. 이 곡은 피아노의 화려한 오프닝으로 시작된 후 첼로가 특유의 저음으로 선율을 노래하는 곡이다. 문태국씨는 폭 넓은 음역대를 넘나드는 선율을 세련되면서도



첼리스트 문태국씨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항상 더 좋은 마음과 음악을 들려 줄수 있는 겸손한 음악가가 되고 싶다” 고 전했다

힘있게, 유려하면서도 감미롭게 표현했다. 이어진 앙콜곡으로 멘델스존의 ‘무언가’ 가 연주되었으며 두 연주자들은 간결한 멜로디 안에 숨어 있는 음악성을 마음껏 꽃 피우며 아름답게 음악회의 끝을 맺었다. 참석자들은 두 유망 신예 아티스트의 놀라운 실력과 음악에 대한 열정에 뜨거운 찬사를 보냈다. 문태국씨는 작년과 올해 사이 수원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 코리아안심포니와 함께 교향악축제 등 많은 행사에서 무대를 가져왔다. 또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스프링 베스티스트라와 협연 및 독주회를 가졌고 지난 여름SK 케미칼과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시상하는 G.rium 아티스트로 선정되었다. 문태국씨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한 연주회에서 연주한 곡들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들이지만, 특별히 마지막을 장식한 쇼팽 폴로네이즈는 미국 유학 초기부터 연주했던 곡이었다” 며 “오래된 만큼 여러 추억이 곁들여 있는 곡이라 더 애착이 간다” 고 말했다. 문태국씨는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음악제의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무대를 함께할 예정이고, 오는 12월 16일에는 뉴잉글랜드 콘서트바토리에 졸업연주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문태국씨는 현재 카잘스 콩쿠르 수상 이후 뉴잉글랜드 콘서트바토리에 첼로를 공부하고 있으며 내년 5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문씨는 “졸업 후 유럽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 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항상 더 좋은 마음과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겸손한 음악가가 되고 싶다” 고 전했다. [jham@bostonkorea.com](mailto:jham@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mailto: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http://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셀럼 배속까지 즐기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메사추세츠 북쪽에 위치한 셀럼은 보스톤에서 북쪽으로 약 26km 정도 위치해있다. 셀럼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항구도시지만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가장 으스스한 마을로 손꼽히는 셀럼은 특별히 할로윈 시즌인 가을에 정점을 찍는다.

마녀의 집(The Witch House)은 박물관이자 마녀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물로 마녀 재판과 관계된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코스튬을 입고 매년 호손 호텔(Hawthorne Hotel)에서 열리는 할로윈 코스튬 파티에도 참가해보자.

셀럼 하운티드 하우스(Haunted Happenings of Salem)



뉴잉글랜드에서 아주 유명한 셀럼 하운티드 하우스는 마법의 유령, 전설의 전차 여행, 마녀 재판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이며 매년 새로운 이벤트와 퍼포먼스를 볼 수 있다. 이 행사는 오는 15일부터 31까지 열리며 매일 다른 행사가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http://www.hauntedhappenings.org>)를 통해 알 수 있다.

마녀 박물관(Salem Witch Museum) 셀럼에서는 1692년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19명이 처형되었다. 마녀 박물관은 1692년에 있었던 악명 높은 마녀사냥 및 재판을 그대로 재현한 박물관이다.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공연이 펼쳐지는데, 설명과 함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옮겨 놓은 13개의 무대가 그 시대에 직접 간직한 기분을 자아낸다. 당



시의 끔찍한 처형 모습, 가슴 아픈 역사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촛불을 켜고 잊치 트라이얼 트레일(Witch Trial Trail)을 걸으며 마녀사냥이 일어났던 17세기의 셀럼을 체험할 수 있다. 입장료는 어른 \$10.50, 6~14세의 어린이는 \$7.50이며 6살 미만은 무료입장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salemwitchmuseum.com](http://www.salemwitchmuseum.com))에서 알 수 있다.

할로윈 코스튬 파티(Halloween Costume Parties)



뉴잉글랜드 가장 유명한 할로윈 코스튬 파티를 소개한다. 셀럼에 위치한 하폰 호텔(Hawthorne)에서 매년 열리는 할로윈 코스튬 파티 및 콘테스트는 90분의 입장료로 서커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호텔에서 숙박하며 즐기는 하폰 호텔 할로윈 패키지도 있다. 이번의 할로윈 파티는 '훼손될 밤(A Night to Dismember)' 이

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 21살 이상 입장이 가능하며 오는 10월30 밤 8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된다. 이 행사에 대한 문의는 <http://www.hawthornehotel.com/Halloween>에서 할 수 있다.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Peabody Essex Museum)

셀럼에 위치한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Peabody Essex Museum)은 1799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는 박물관 중 하나이다. 박물관은 세



일럼의 피바디 박물관(Peabody Museum)과 에섹스 협회(Essex Institute)의 수집품들을 함께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은 아시아 미술 수집품을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박물관이며 소장품은 약 1300만 개의 작품과 22개의 역사적 건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은 크기와 박물관의 기부는 미국내 Top 20 박물관 포함되어 있다.

박물관은 해양 예술, 역사, 아메리칸 예술, 아시아·대양·아프리카 예술, 아시아에서 전해진 예술 작품이 무려 84만 개가 넘으며, 40만 권이 넘는 서적과 원고가 전시되어 있다.

셀럼 항구(Salem Harbor)

셀럼 항구는 미국 역사의 식민지의 주요 국제 항구 중 하나이었으며 미국에서 6번째로 큰 항구이기도 하다. 현재는 상업과 여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일럼의 유명한 관광지로 여



겨지기도 하다. 특별히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는 대서양의 국제 무역이 이곳에서 실시되었고 도자기, 가구, 예술, 섬유, 향신료, 염료 등이 수입되었던 곳이다. 항구에는 200년이 넘는 "Friendship of Salem"의 웅장한 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mailto:jham@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mailto: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http://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보스톤 식당에도 팁 없어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팁 문화가 사라진다면 미국 식당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항상 식사가 끝난 후 계산서에 어느 정도의 팁을 놓아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기 쉽다. 특별히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된 한인들은 팁 문화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서비스에 있어서는 늘 15%~20%를 준다는 것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지난 보스톤 글로브의 18일 19일자 보도에 의하면 많은 뉴욕 식당들이 팁을 받지 않는 대신 음식 값을 올려 종업원들에게 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고객들이 비용 걱정하지 않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게 바꾸자는 의도이다. 뉴욕에 이어 매사추세츠 주의 웨이터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과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를 비롯해 많은 도시들의 서버들은 식당의 평균 팁을 나눠 갖고 있어 시간당 최저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곳이 많다. 보스톤 글로브 18일 자에 보도된 매사추세츠 주 노스햄턴에 위치한 해이마켓 카페의 서버 카마리

아 잭맨은 “팁 제도가 없어지면 물론 한가한 날도 일정하게 임금이 지급되지만, 내가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자극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진다” 고 전했다. 오랫동안 서빙을 해온 존 피츠릭씨는 “팁 제도가 없어지는 것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실행되지 못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이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식당 주인이 각 서버들의 값어치를 매겨서 지급을 했으면 한다” 고 덧붙였다.

보스톤 사우스 엔드 스시 레스토랑의 풀타임 서버 조 세랍슨씨는 “10년 넘게 서빙을 해왔지만 팁 제도가 없어지면 바로 다른 직업을 알아볼 것이다. 나는 나의 서비스 대가를 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팁이 없어지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이유조차 없어진다” 고 말했다.

퀸지 중동 레스토랑 주인 캐비아스씨는 “서버들은 각자 자신들이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구를 사용할 당시 손님의 평가로 자신의 값어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서비스에 목숨을 거는 것 같다” 고 전했다.

jham@bostonkorea.com



영국의 패스트패션 브랜드 프리마크가 지난 9월 10일 미국 1호 매장 및 미국 지사를 보스톤 다운타운에 설립했다

## 프리마크 보스톤 제 1호점 개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저렴한 가격의 의류로 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마크(Primark)가 지난 9월 10일 미국 1호 매장 및 미국 지사를 보스톤 다운타운에 설립했다.

프리마크는 보스톤을 시작으로 동부지역에 7개 매장을 개설한 후 미 전역으로 매장을 늘려갈 계획이다.

프리마크의 캐쉬어 개리(26)씨는 “오픈한지 1달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매일 블랙 프라이 데이 같다” 고 말했다.

프리마크가 들어선 건물은 메이시스 백화점 맞은 편인 한때 유명 디스카운트 리테일러 파일리스 베이스먼트가 자리 잡고 있던 건물이며 4층 전체를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가구, 악세서리로 나누어 자리를 잡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기반의 프리마크는 일본의 유니클로(Uniqlo)에 이어, 스페인의 자라,

스웨덴의 H&M, LA의 포에버21과 비교되는 경쟁 브랜드이며 훨씬 저렴한 가격의 의복으로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프리마크는 \$10 이하의 와이셔츠, \$6 이하의 넥타이, \$3.50의 티셔츠, \$10 청바지, \$5 가량의 신발 등 저가의 하이 스트리트 패션을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정장 자켓과 바지를 \$100 안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프리마크는 지난해 상반기 프랑스에 진출한 데 이어 올해는 이탈리아와 미국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등 9개국에서 25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프리마크의 영업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며(금,토 9시 30분)이며 일요일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다.

jham@bostonkorea.com



최근 뉴욕에서는 식당들이 팁을 받지 않는 대신 음식 값을 올려 종업원들에게 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통 등 각종 통증질환
- 유선, 안면마비, 어혈, 내이염 등 경추증
-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두통, 스무스스 할레
- 관상 동맥질환, 비염, 근육통
- 요통, 어깨, 목통 등 각종 통증질환
- 유선, 안면마비, 어혈, 내이염 등 경추증
-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두통, 스무스스 할레
- 관상 동맥질환, 비염, 근육통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주류 판매점 주인들, 추수감사절 영업 반대

추수감사절 영업 허가하는 법안 발의돼  
가게 위치와 업주에 따라 상반된 입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주류 판매점(Liquor Store) 업주들이 추수감사절에도 가게 문을 열고 술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추수감사절에도 주류 판매점 문을 열고 영업을 하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류 판매점 연합의 프랭크 안젤로티 상임 이사는 주의회 공청회에서 "우리 역시 매사추세츠 주의 다른 주민과 다름 없다. 1년 중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날은 며칠밖에 없다"며 "우리는 항상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보낼 때, 우리도 가족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가게 문을 닫고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는 날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법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서는 추수감사절에 주류 판매점이 영업을 할 수 없고, 술을 팔 수도 없다. 추수감사절 외에도 메모리얼 데이와 크리스마스에 주류 판매점이 문을 닫

아야 한다.

매사추세츠에서 1년 중 주류 판매점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한 날은 3일이다. 폴린 개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주류 판매점의 영업을 금지하는 날 중에서 추수감사절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리 의원의 지역구는 뉴햄프셔 주의 경계와 인접해 있다. 이 지역의 주류 판매점 업주들은 뉴햄프셔의 주류 판매점과 경쟁하기 위해 추수감사절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개리 의원의 설명이다.



MA주법에 따라 메모리얼 데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에 주류 판매점이 영업을 할 수 없다

개리 의원은 "단체의 입장과 개별 상점의 입장은 종종 다를 수 있다"며 "또한 매사추세츠 주의 어느 지역에 (주류 판매점이)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젤로티는 "만약에 우리 (매사추세츠 주류 판매점 연합)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면, 아마도 추수감사절에 영업을 하자는 쪽으로 크게 기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머빌에 위치한 사브모르 리퀴의 벤 위너 사장은 "만약 옆 가게에서 추수감사절에 문을 열면, 나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어야만 한다"며 "그게 우리 비즈니스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레드삭스의 타자 데이빗 오티즈가 팬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 펜웨이 파크, 인터넷 속도는 최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4년 동안 지구 끝 저편을 3번이나 한 보스톤 레드삭스는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실력이 바닥일 수 있다. 그러나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는 관중들이 셀카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에 가장 좋은 구장이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펜웨이 파크는 29개 메이저리그 야구장 중에서 모바일 접속이 가장 좋은 구장으로 나타났다.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여름에 업그레이드 된 펜웨이 파크의 와이파이 시스템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를 기록했다. 펜웨이 파크의 와이파이 속도는

와이파이 속도에서 2위를 차지한 디트로이트의 코메리카 파크보다 22%나 빨랐다.

펜웨이 파크에서는 휴대폰 통신사의 데이터 네트워크 접속 속도도 빨랐다. 주요 통신사 중에서 펜웨이 파크에서 가장 데이터 접속이 좋은 통신사는 버라이즌이었다.

이번 조사는 시애틀에 위치한 루트메트릭스라는 회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루트메트릭스는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이 이메일을 확인하고 앱을 사용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하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여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jsi@bostonkorea.com

경관장 정품은 경관장만 취급하는 '브랜즈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KGC인삼공사

**녹용의 원칙을 세우다**

**10월 30일**  
보스톤 경관장에서  
한국과 같은 가격에  
판매 실시합니다.

용삼에도 적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경관장 출신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공질면에서 우수합니다.

6년근 용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경관장 브랜드스토어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어포더블 하우스 이젠 중산층을 노린다



케임브리지 셔드 스트리트에 건설된 비보 아파트먼트. 현재 이 아파트는 시세보다 낮은 1996-2,439에 달러의 렌트 가격으로 대기자 명단을 받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어포더블 하우스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또는 임대 아파트를 떠올리지만 이젠 그 개념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마감된 케임브리지 켄달 스퀘어 아파트 어포더블 하우스 신청자의 연소득은 11만 8천2백불이었다.

쓰리베드룸 렌트 월 \$3,229-\$4,364, 2베드룸 아파트 15채를 월 \$1,996-\$2,439에 내놓은 이 어포더블 하우스는 케임브리지시가 중산층을 겨냥해 실시하는 어포더블 하우스이다. 원베드룸은 월 \$1,663-\$2,032.

켄달 스퀘어 인근인 셔드 스트리트에 건설되는 비보 아파트 로터리는 케임브리지 시가 바이오 테크의 중심지인 켄달 스퀘어에 마련하고자 그동안

중산층을 염두에 두고 계획해왔던 어포더블 하우스이다.

케임브리지 하우스 디렉터 크리스 코터는 새로운 원베드룸 아파트가 월 \$3000을 호가 하면서 점차 중산층들을 케임브리지에서 쫓아내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이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임브리지는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케임브리지 웹사이트 광고를 통해 15채의 비보 아파트에 총 43개의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현재 이들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당첨자를 추천할 예정이며 지금도 계속해서 대기자 명단의 접수를 받고 있다.

케임브리지 시는 향후 센트럴 스퀘어에 건설되는 230유닛의 매스앤메인

아파트에도 40채의 저소득 아파트와 더불어 7채의 중산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는 켄달 스퀘어의 14에이커에 달하는 볼프 교통센터의 재개발에 5 퍼센트의 주택을 중산층을 위한 어포더블로 규정하고 있다.

보스톤시도 지난 2011년 이래 중산층을 위한 하우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4인가족 기준 연소득 11만 8천2백불(보스톤 평균 소득의 120%)까지 로터리에 참여를 허용하는 아파트를 120채까지 공급했다.

그러나 지금껏 어포더블 하우스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념이었는데 이것을 중산층까지 확장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hsb@bostonkorea.com



J.W 카니 변호사가 평결이 발표된 후 흐느끼는 오웬 라브리에의 팔을 잡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 여학생 성폭행 명문 세인트폴 학생 강간죄는 모면, 중형 선고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급반 미성년 여학생을 일종의 졸업 관례로 성폭행 해 논란을 일으켰던 뉴햄프셔 사립 고등학교 세인트 폴의 졸업생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AP가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한 재판관은 배심원의 컴퓨터 성범죄에 대한 평결을 지지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하급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버몬트 거주 오웬 라브리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앞으로 평생 동안 성폭행범이라는 딱지를 달게 된다. 라브리에에 대한 공식 판결은 오는 29일 있을 예정이다. 중형을 받는 경우 최장 7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15세 여학생을 강간한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8월 말 무죄평결을 내리면서 일단 큰 짐은 내려놓게 됐다. 이와 달리 배심원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성폭행 혐의와 다른 3가지의 경범죄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려 중형의 길을 열어놓았다.

다. 고교 재학시 전과목 A학점을 받았고 하버드 합격 통지서까지 손에 쥐었던 라브리에 군은 이제 평생 성범죄자란 낙인을 갖고 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159년 전통의 최고 명문 사립고였던 세인트 폴의 추악한 이면을 드러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만화 دن스베리의 창작가였던 케리 트러도가 동문으로 있는 이 학교는 그동안 졸업생들이 경쟁적으로 후배 여학생들을 성폭행 해왔던 관례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 학교의 연 등록금은 5만불이 넘는 다.

이번 재판에서 라브리에 군과 그의 친구들은 여학생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속어인 "슬레이(slay)" 이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를 경쟁했다. 졸업생들이 이처럼 하급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베어 넘기는 의식을 이들은 "시니어 살루트"라고 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hsb@bostonkorea.com



**15 YEARS**  
**ARLINGTON MR.SUSHI**

**순두부, 일본 사골 라멘**  
**Spicy Soft tofu, japanese Ramen**

열큰 순두부, 사골국볼로 맛을 낸 구수한 MISO KAKUNI RAMEN



**TEL (781) 643-4175**

**\$5 OFF**  
DINNER  
WITH A PURCHASE OF \$30 OR MORE  
ONLY ONE COUPON PER TABLE(DINE IN ONLY)

**EXP DATE. 01.31.2016**  
699 MASS AVE, ARLINGTON, MA. 02476  
TEL. 781-643-4175

---

**\$10 OFF**  
DINNER  
WITH A PURCHASE OF \$50 OR MORE  
ONLY ONE COUPON PER TABLE(DINE IN ONLY)

**EXP DATE. 01.31.2016**  
699 MASS AVE, ARLINGTON MA. 02476  
TEL. 781-643-4175

# 바이든 불출마 선언, 힐러리·공화 환호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21일 민주당 대선 경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그의 출마 여부에 촉각을 기울였던 민주당 선두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주자들 모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는 이날 트위터 성명을 통해 "바이든 부통령은 좋은 친구이자 위대한 사람"이라며 "오늘은 물론 언제나 그의 긍정적인 자세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헌신에 영감을 얻고 있다"고 불출마 소식을 환영했다.

이어 "바이든 부통령과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아는 그는 언제나 최전선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자신을 포함한 민주당 진영의 대선 승리를 위해 선거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8년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클린턴 후보는 올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민주당 내는 물론 공화당 후보를 포함

한 상태에서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대세론을 형성했다.

그러나 국무장관 시절 공무원 계정이 아닌 개인 이메일 계정을 공무상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각종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지율이 뚜렷하게 하락했다.

불안해진 민주당 지지층은 경쟁력 있는 대항마를 필요로 했고 이후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버니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한편 바이든 부통령의 불출마설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바이든 부통령이 출마할 경우 샌더스 후보보다 자신의 지지율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클린턴 후보로서는 지난 TV토론회 이후 나타난 지지율 상승과 함께 바이든 부통령의 불출마 선언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트럼프 후보를 비롯한 공화당 진영도 바이든 부통령의 불출마를 반겼지만 결은 다르다. 이메일 스캔들 등으로 허약해진 클린턴 후보만 이기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속내에서다.

트럼프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

바이든 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나 그의 가족을 위해서나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성적이 나쁜 클린턴 후보와 상대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도 "민주당에서 가장 위협적인 후보가 출마할 수도 있었다"며 "그러나 바이든 부통령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프리버스 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원들은 인기 없고 스캔들로 얼룩진 선두주자 클린턴 후보와 함께 할 것이 거의 분명해졌다"며 "바이든 부통령의 불출마는 우리가 백악관을 되찾아올 확률을 매우 높였다"고 분석했다.

다른 공화당 후보인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민주당은 이제 사회주의자(샌더스)나 연방 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클린턴) 중에 1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findlove@news1.kr



하원의장 유력 후보인 폴 라이언 하원의원

## 공화당 '셋별' 라이언, 124년만에 '40대 하원의장' 될 듯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 공화당의 차세대 기수로 꼽히는 폴 라이언(45) 하원의원의 '조건부' 출마선언으로 40대 하원의장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라이언 의원은 20일 당 전체가 자신을 지지한다면 하원의장직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아직 하원의장직 선출 절차가 남은 가운데 강경보수 성향 일부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지만,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라이언 의원에겐 무게추가 크게 기울어 가는 게 사실이다.

존 베이너 현 의장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과 차기 의장으로 유력했던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의 '벙가지 특위' 실언 논란으로 라이언 의원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공화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당선될 경우 라이언 의원은 미국 정치 사상 124년 만에 40대 하원의장으로 이름을 올린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찰스 프레더릭 크리스프가 1891년 만 46세의 나이로 하원 의장에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의장직은 50대 이상 베테랑 정치인들의 전유물이었다.

젊은 나이에 이미 8선 의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경력의 소유자인 라이언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밋 롬니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면서 일약 전국구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그는 억만장자인 롬니 전 후보와 달리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한 '서민 정치인'으로도 유명하다.

1970년 위스콘신 주 제인스빌에서 태어난 라이언 의원은 16살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숨진 뒤 사회보장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학창 시절부터 알츠하이머를 앓는 할머니를 돌보고 맥도날드에서 일하며 자립심을 키운 그는 오하이오 주 마이애미 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뒤 밥 카스텐 상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웨이터, 피트니스 트레이너 등 '부업'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1998년 고향인 위스콘신 주 1번 선거구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로 당선된 뒤부터는 탄탄대로를 걸었다.

8번의 선거에서 모두 5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낙승을 거듭했고, 지난 2011년 회기부터는 하원 예산위원장으로 활약 중이다.

그는 지난 2013년 공화당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업무정지)을 불모로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하며 예산안 다툼을 벌일 때 당내 강경파를 설득해 민주당과 합의를 끌어내 정치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firstcircle@yna.co.kr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COLDWELL BANKER**  
Kathy Lee  
Call: 781.354.1622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드립니다

학군 좋은 보스톤 앞대 아파트, 콘도, 주택 전문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Fax 617.969.7912  
Kathy.Lee@NEMoves.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중은 치과  
중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F-35, 캐나다 구입포기 전망에 가격상승 불가피할 듯

트뤼도 새 총리 "F-35 안산다" 공약...미군 "대당 11억여원 상승"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한국이 도입할 예정인 최신에 차세대 전투기 F-35의 가격이 캐나다 정권교체 때문에 인상될 것이라는 미군의 전망이 나왔다.

21일 미국 군사매체 밀리터리닷컴에 따르면 F-35 사업단장인 크리스토퍼 보그단 미 공군 중장은 하원 군사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 보고에서 캐나다가 F-35 개발사업에서 빠지면 대당 비용이 약 100만 달러(약 11억 4천만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자유당 당수로서 최근 총선

승리에 따라 총리 내정자가 된 쥐스탱 트뤼도는 집권하면 F-35 구입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트뤼도 당수는 "65대의 F-35를 구입하는 160억 달러(약 18조 2천억원) 짜리 프로그램은 세금을 내는 캐나다 국민에게 악몽"이라고 말했다.

자유당은 총선 공약집에서도 F-35를 구매하지 않고 기존 CF-18 전투기를 교체할 투명한 공개입찰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자국 전투기의 주요 임무는 북미 방어일 뿐 스텔스 선제타격 능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그단 단장은 캐나다가 사업에서 빠지면 제작되는 F-35의 수가 감소하면서 대당 비용이 0.7~1% 상승한다고 보고했다.

미국 외에 캐나다, 호주, 덴마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터키 등이 F-35 구입 예정 국가로서, 한국은 차기전투기(F-X) 사업을 통해 F-35A 40대를 구입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총 3천910억 달러(약 445조 2천억원)를 들여 2천 457대의 F-35를 구입해 공군, 해병대, 해군에 공급할 계획이다.

jangje@yna.co.kr



한국이 도입할 예정인 최신에 차세대 전투기 F-35

## "연준의 남은 3가지 부양 수단, 모두 위험한 것뿐"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준)은 오랫동안 '제로 금리' 등 초 완화 기조를 유지해 온 상황에서 더 쓸 수 있는 3가지 정책 도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위험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2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연준이 더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의 첫째는 '추가 선제 안내'라고 지적했다.

이 방법의 최대 장점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시장 판단보다 금리를 더 천천히 올릴 것'이란 점이 잘 소통되면 차입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그 효과가 단기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왜냐하면, 연준이 선제 안내 강화를 통해 특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체 수익률이 이미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 예로, 3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0.90%까지 떨어졌음을 상기시켰다.

연준에서 일하다 코너스톤 매크로의 파트너로 옮긴 로베르토 페를리는 블룸버그에 "이미 침체에 빠졌거나,

만기 2, 3, 4년 물 수익률이 제로 수준에 접근해 있으면 (추가 선제 안내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도구로 추가 양적완화(QE)가 언급됐다.

추가 QE는 금융 위기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이미 확인됐다고 블룸버그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전했다.

특히 장기 금리를 장기간에 걸쳐 오르지 않도록 억제함으로써, 경기 부양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심각하지 않은 침체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또 장기채 수익률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즉, 연준이 2008년 양적완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3.11%로 '떨어뜨릴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2%대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연준이 그간 3차례의 양적완화로 무려 4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사들인 것도 큰 부담이라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연준이 구사할 수 있는 마지막 수

단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언급됐다.

2008년부터 0~0.25%의 연방기금 금리 대역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더 낮추려면 마이너스로 가야 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스웨덴 등에서 확인됐듯이 채택 시 금융시스템상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달러 강세를 견제해 미국의 수출 경쟁력에 보탬이 되는 부수 효과도 기대된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금융 시스템이 유럽과 다르다는 점은 문제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유럽과 달리 지역은행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중소은행은 수익의 큰 부분을 예금 이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지역 여신도 위축시켜, 초 완화의 지상 목표인 경기 부양을 저해하는 아이러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의 안토니오 보핀 선임 국장은 블룸버그에 "통화 정책 옵션이 더 취해져도 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ksun@yna.co.kr



조종사가 전방위 표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F-35기 조종사용 헬멧

## F-35 스텔스기 '결함 논란' 계속.. 이번엔 헬멧

저체중 조종사에 무거워 비상탈출 시 부상 위험 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미국이 4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입하는 차세대 스텔스 통합타격기(JSF) F-35기를 둘러싼 '결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 워싱턴이그제미너 등 언론은 크리스토퍼 보그단 F-35 사업단장(공군 중장)의 말을 빌려 대당 가격이 40만 달러(4억 5천만원)인 F-35기 조종사용 헬멧이 무거워 몸무게가 가벼운 조종사의 경우 비상탈출 과정에서 부상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보도했다.

보그단 단장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해 겨울 헬멧의 문제점을 발견, 올해 8월까지 테스트한 결과 무게가 2.45kg인 이 헬멧이 몸무게가 가벼운 조종사들이 비상탈출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

밝혔다. 이어 헬멧의 무게를 6온스(171g)가량 줄이는 한편 61kg 이하 저체중 조종사에게 적합하도록 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해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록웰 콜린스 사가 개발한 F-35 조종사용 헬멧은 기체 외부에 장착된 6대의 고해상 적외선 카메라와 연동해 조종사가 모든 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3세대 헬멧 디스플레이 시스템(HDS)이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외부 상황을 헬멧 안의 스크린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 연료 잔량,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중요 정보는 물론 적군 전투기와 지상 무기 위치도 한 눈에 볼 수 있어 공상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형'(futuristic) 헬멧이므로 기대를 모아왔다.



F-16기를 이용한 사출좌석 비상탈출 시험

다. 그는 몸무게 61kg 아래인 조종사들은 무게가 2.17kg 이상인 헬멧은 안전하게 착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공군이 지난 8월 27일 자료 체중 61kg 아래인 조종사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운영 중인 79대의 F-35기 조종을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한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 등 일부 언론은 앞서 체중 61kg 아래인 조종사가 F-35기를 저속으로 비행할 때 사출좌석(ejection seat)이 과도하게 회전해 목 부위 손상 등 조종사에게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 결과 밝혀졌다고 보도 한바 있다.

shkim@yna.co.kr

# TASTE OF KOREA

# 코리아나

##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볼릭앵거스 비프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볼릭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월요일-목요일 11:30AM~10:30PM  
금요일-목요일 11:30AM~12:00AM  
103 Prescott St, Cambridge, MA 02142



**Parking Information**

1. 한국문화회관 (Korean Cultural Center) 1000 Boylston St., Boston, MA 02116
2. DDB (DDB Needham) 1000 Boylston St., Boston, MA 02116
3. DDB (DDB Needham) 1000 Boylston St., Boston, MA 02116

##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샷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적이 실어남니다)  
잡티 개선 참연셀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 매끄러운 출발, 격한 대립, 합의 없는 '빈손'...108분 5자회담

예정 종료 시각보다 18분 미뤄져...국정화 문제만 약 30분 논의  
문 "친일·친독재 교과서"...김 "어떻게 그런 말을"

(서울=뉴스1) 유기림, 김영신, 이정우 기자=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2일 5자회담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격론을 펼친 끝에 특별한 합의 없이 끝났다.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회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48분까지 1시간48분 동안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당초 예정됐던 회동 시간 1시간30분보다 18분 길어진 정도로 정부·여당과 야당은 강하게 대치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격론을 펼쳤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안만 두고 약 30분 정도 설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이 박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만큼 회동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비공개 회동 전 약 4분간 환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화두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원 원내대표는 자신과 이 원내대표의 이름을 이용해 재치있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문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먼저 꺼내기 시작,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반발이라는 각자의 입장만 교환하고 인식 차를 좁히지 못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든 참석자가 뜨거운 토론을 했다"며 "서로 보는 관점이 상이하고 인식 차이가 있었던 건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는 점이 안타깝다.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자랑스러운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특히 김 대표와 문 대표는 구체적으

로 현행 역사교과서에 김일성 주체사상 등 문제 내용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실랑이를 벌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표는 회동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가리켜 "친일·친독재 교과서"라며 국정화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가 친일과 독재

미화(국정 교과서가) 시도한다고 하는데, 집필진도, 교과서도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고 회동 뒤 기자들에게 밝혔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는 회동 말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 등 정부에 맡기라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야당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돌아온 뒤 격양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표는 "대통령과 김 대표의 역사 인식은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는 것 같은 압박함을 느꼈다"고, 이 원내대표는 "마치 국민 일상에서 벗어난 섬에 다녀온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girin@news1.kr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있다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3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Dunwoody College	
Le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assachusetts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arist College	Undergraduate (iv. 5) Graduate (i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ASC ENGLISH**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 (617) 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http://www.ascenglish.com)

#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OCT. 23RD - OCT. 29TH, 2015

Hmart 겨울용품 준비 세일전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Start warm with Hmart must-have winter appliances.  
이번 겨울은 H마트에서 겨울용품을 실속있게 준비해보세요!

**KAKAO TALK**  
H마트 핫한 세일정보 이젠 카카오톡으로 받으세요!  
Receive Special HMART DEALS via KakaoTalk!  
You must install KakaoTalk and add Hmart Burlington YellowID on your KakaoTalk to enroll.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어야 이용 가능하며, H마트 벌링턴 옐로아이디를 카카오톡에 추가해주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Burlington ID: @hmartma

<p><b>Kyong Gi Rice</b> 경기미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경기미 40 lbs. <b>\$29.99</b></p>	<p><b>Traditional family recipe KTOWN Bibimbap/Japchae</b> 케이타운 비빔밥/잡채 <b>\$2.99</b> 9.87-10.86oz.</p>	<p><b>CJ Sanuki Udon Noodle</b> CJ 사누끼 우동면 1 lb. <b>\$3.99</b></p>	<p><b>CHORIPDONG Coarse Sausage</b> 조림동이 통통한 비엔나 소세지 <b>\$2.99</b> 8oz.</p>
<p><b>BEKSUL Plum Syrup</b> 건강한 매실청을 더욱 간편하게-백설 매실청 36.16oz. <b>\$7.99</b></p>	<p><b>CHORIP DONG Honey Citron Tea</b> 조림동이 한국산 유자차 2.2 lbs. <b>\$4.99</b></p>	<p><b>ITO EN Tea Bag</b> 이토엔 차 All Varieties/20cnt - pkg. <b>\$3.99</b></p>	<p><b>SPAM HORMEL FOODS Spam</b> All Varieties/12oz. <b>\$2.99</b></p>
<p><b>BOUNTY Paper Towels</b> 바운티 페이퍼 타올 BOUNTY Paper Towels 15rolls/pkg. <b>\$14.99</b></p>	<p><b>NICE LOCK Pressure Lock Food Container</b> 황토진공 누름락 밀폐용기 20L/ea. <b>\$19.99</b></p>	<p><b>HELLO HOME Modern Toaster</b> 헬로홈 모던 토스터기 XJ-13216/Black/ea. <b>\$16.99</b></p>	<p><b>HELLO HOME Well-Being Juicer</b> 헬로홈 웰빙 녹즙기 XJ-14416/ea. <b>\$49.99</b></p>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and WeChat for special offers.

<p><b>NEW CROP</b> KOKUHO Extra Fancy Med. Grain Rice (Yellow) 15 lbs. <b>\$12.99</b></p>	<p><b>BIG SALE</b> HAIOREUM Canned Bai Top Shell 해오름 골뱅이 통조림 14.1oz. <b>\$4.99</b></p>	<p><b>BIG SALE</b> OSAKI BRAND Fish Cake 오사끼 개맛살 1.1 lbs. <b>\$5.99</b></p>
---	--	---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p><b>NEW CROP</b> Fuj Apple 1 lb. <b>\$1.49</b></p>	<p><b>OLMIA'S Organic Baby Spinach</b> 올리비아 유기농 베이비 시금치 5oz./pkg. pkg./for <b>2\$4</b></p>	<p><b>Fuyu Persimmon</b> 단감 박스 box <b>\$14.99</b></p>
<p><b>NEW CROP</b> Radish 1 box <b>\$14.99</b></p>	<p><b>NEW CROP</b> Koimo Sweet Potato 1 lb. <b>\$1.79</b></p>	<p><b>JINGA Tofu</b> 진가네 두부 All Varieties/16oz. <b>\$0.99</b></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b>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gi</b> 냉동 소불고기 lb. <b>\$6.99</b></p>	<p><b>Boneless Pork Loin</b> 돈까스용 돼지고기 lb. <b>\$4.99</b></p>	<p><b>Beef Brisket Chunk</b> 양지머리 lb. <b>\$9.99</b></p>
<p><b>Pork CT Butt Chunk</b> 수육용 생돼지목살 lb. <b>\$4.99</b></p>	<p><b>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b> 양념 별집 등심 스테이크 lb. <b>\$6.99</b></p>	<p><b>ALCHAN SOONDAE 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b> 알찬 순대 1.5 lbs. <b>\$11.99</b></p>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b>Squid</b> 냉동 오징어 lb. <b>\$1.99</b></p>	<p><b>Bronzini</b> 브론지니 lb. <b>\$6.99</b></p>	<p><b>TONG TONGBAY Tilapia Fillet</b> 통통배 틸라피아 필렛 7-9oz./pkg. <b>\$3.99</b></p>
<p><b>TONG TONGBAY Oyster</b> 통통배 청정생굴 8oz./pkg. <b>\$2.99</b></p>	<p><b>Cooked Whelk Meat</b> 냉동 굴뱅이살 lb. <b>\$9.99</b></p>	<p><b>SANFORD Half-Shelled Mussels</b> 샌포드 반개합 2 lbs./pkg. <b>\$7.99</b></p>

### 최고급 사제 결들인 스키 만찬과 차가운 거부

보스톤코리아 인사이트 : F-X 사업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다. 여기에 K가 붙어 KF-X가 되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된다. 차세대 전투기 구입시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붙여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자체 개발 기술을 기르겠다는 사업이다. 그런데 수십조 예산의 이 사업을 결정 당시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록히드사의 F-35를 구입했고 이는 청와대에 제 때 보고되지 않았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랬다. 늘 청와대 보고는 제 때에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굴욕외교 논란도 여기서 출발한다. 아베 총리가 받았던 융숭한 만찬과 애쉬톤 카터 국방장관의 차가운 거부가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사제 결들인 스키 만찬,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를 직접 동행했던 링컨센터 방문. 박대통령에게 만찬이 아닌 오찬을 대접한 것은 바이든 부통령이었다. 거기에 일본에는 F-35 수리센터를 건설키로 하는데 한국에는 기술이전도 없다. 차가운 '노' 만 있을 뿐.

# 'KF-X 기술이전 실패' 문책론... 청와대로 번지나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사의 표명설'에 확인 거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 사업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결정의 후폭풍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분위기다.

KF-X 사업에 대한 청와대 내 주무 수석비서관이었던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사의(辭意)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아직 주 수석의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나, 이미 정치권 등에서 KF-X 사업의 '부실 추진'을 이유로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4월 미국 측으로부터 KF-X 사업 관련 4개 핵심기술의 국내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두 달이 지난 6월에 서야 청와대에 정식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수석의 '사의 표명설(說)'은 결국

이 같은 보고 누락·지연 문제를 포함, 관련 논란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청와대가 작년 5월에 미국 측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정수석실에서 사업 결정과정 등의 진상을 확인키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 수석은 당시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KF-X 사업과 관련한 '문책' 대상으로 거론됐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3~18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KF-X 관련 기술 이전을 거듭 요청했으나, 다시 한 번 미국 측의 '이전 불가' 입장을 확인한 채 되돌아와야 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수행단으로서 KF-X 관련 기술 이전 문제를 재차 공론화했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그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있다. 그러나 주 수석 등 관련 인물이 교체될 경우 자칫 '대미(對美) 군사외교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청와대의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오는 20~26일엔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예정돼 있고, 내달 초

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점 등을 감안할 때도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 수석의 사의 표명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아는 바 없다. 주 수석 본인도 얘기를 안 해준다"며 사실

상 확인을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정감사에서 KF-X 사업 문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ys4174@news1.kr

## 미국방부 "극소수 기술은 여전히 수출 불가"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한국형전투기(KF-X) 관련 핵심기술 4종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미국 국방부의 조 소위스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21일 보낸 답변에서 "미국은 가장 민감한 방산기술의 상당수를 이전함으로써 한국의 (무기체계개발)계획을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할 수 없는 극소수의 기술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독자적 전투기 개발뿐 아니라 다른 (무기개발)계획도 계속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을 때 "조건부 KF-X 4개 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터 장관은 한 장관이 KF-X 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지난 15일 미국 국방부는 카터 장관과 한 장관의 면담을 발표하면서 양국 장관이 "방산기술 이전문제와 우주·사이버 분야에서의 동맹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mile@yna.co.kr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KF-X 형상

## 윤병세 "국방부장관 한미정상회담 참석 이상할 것 없다"

한 장관, KF-X 4대 핵심기술 이전 미 거절당해 '굴욕외교' 논란 정병국 "결과적으로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재뿌렸다"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 김영신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수행에 나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 "미 국방부 방문과 관련 행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한 장관이 참여한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방부 장관이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것이 의외라고 하던데 결과적으로 보면 재를 뿌렸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윤 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참여는 그 자체가 방미행사의 중요한 일부"라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 문제와 구분해서 봐달라"고 했다.

한 장관은 박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형전투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KF-X) 개발과 관련해 4대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면서 굴욕외교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은 "(핵심기술 거절과 관련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미국을 방문해 조율하는 등 사전정치 작업을 끝냈거나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dearpure@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갑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갑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 책임 진료

닥터스 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완부가 손상되거나 척추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록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록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63

역사학자 90% 편향

보스톤코리아 인사이트 : 역사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역사 전문가 90%를 편향이라 한다. 90%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편향이 아니라 정론이라 봐야 '올바른' 아니 건강한 사회다. 역사의 기록은 역사기들에게 맡겨됐다. 조선왕조에도 그랬다. 현대에서 정권의 힘으로 바꾸겠다 한다. 역사를 성형수술할 수는 없다. 사실은 곧 드러난다. 더 추한 얼굴로, 편향된 역사는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41.7% vs 반대 52.7%'...리얼미터

리얼미터 "거의 전 지역, 전 계층에서 반대 의견 많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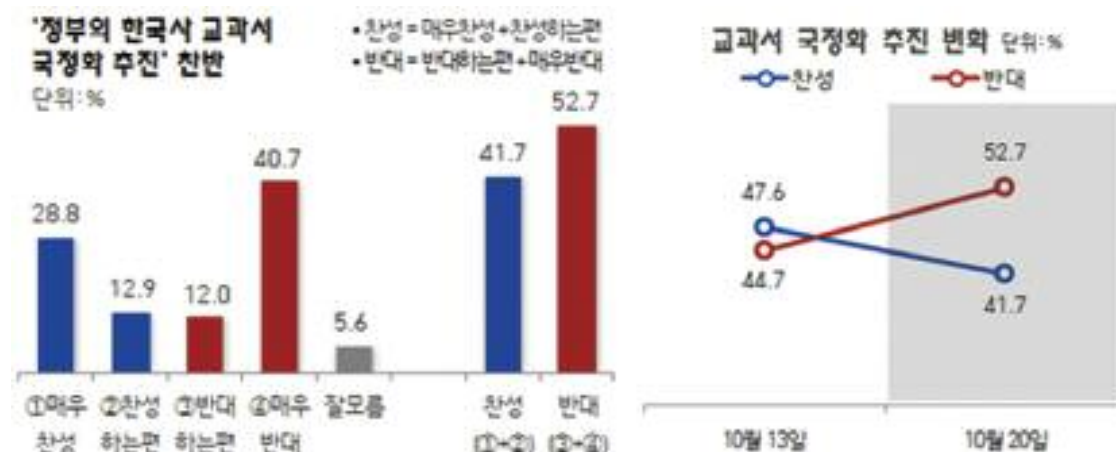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찬성의 견보다 11.0%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국정화 관련 3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정화 반대는 52.7%, 찬성은 41.7%로 오차범위 밖인 11.0%p의 차이를 보였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7%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성 58.1%·반대 34.3%)과 대전·충청·세종(54.1%·44.1%)에서 국정화 찬성의견이 우세한 반면, 광주·전라(26.0%·67.3%), 서울(35.2%·59.8%), 경기·인천(36.4%·58.3%)에서는 반대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남·울산(찬성 47.8%·반대

44.7%)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찬성 67.5%·반대 22.1%)과 50대(52.8%·37.9%)에서는 국정화 찬성이 많은 반면, 20대(21.6%·78.4%), 40대(29.6%·66.5%), 30대(31.4%·65.4%)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지지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76.0%·반대 17.7%)에서는 국정화 찬성이 대다수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5.1%·70.9%)과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19.7%·73.9%)에서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71.7%·반대 23.1%)에서는 국정화 찬성의견이, 진보층(12.1%·83.9%)에

서는 반대가 대다수로 조사됐다. 중도층(찬성 37.6%·반대 59.1%)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 일주일 전인 13일에 실시한 제2차 조사에서는 국정화 찬성 47.6%, 반대

가 44.7%로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3차 조사는 이달 20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

의전화결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pei86@news1.kr



리얼미터 제공

## 국정교과서 예비비 논란... "국민무시" vs "문제없다"

기재위서도 여야 충돌... 국정교과서 논란 점입가경  
홍종학 "박정희 전 대통령 제삿상에 올리려 국정화하나" 발언에 여 발끈

(서울=뉴스1) 박상희, 서미선 기자 =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까지 불뚱이 튀었다. 특히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키로한데 대해서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그러나 정부는 예비비 편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야당과 설전을 주고 받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의 예비비 편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 편성에 대한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도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며 거듭 예비비 편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화 구분 고시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2일에 확정되는데 정부가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요식적 행정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예비비 편성은 기준에도 맞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사

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아닌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비밀리에 예비비를 승인한 것은 위법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창의적인 생각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도 맞지 않고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는 "기재부장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적절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철회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부를 거들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지난번 이미 정부가 방침을 밝혔다"며 "예측 불가능할 때는

예비비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도 "시행령을 보면 행정청은 정책과 제도와 관련해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교육부는 절차를 준수했고 이것은 소관상 임의와 논의할 문제로 기재위서 논의해서는 안되는 의제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양측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국정교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위한 것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의 제삿상에 올리려 국정교과서를 만드느냐"라고 비판하자 김태흠 의원은 관련 발언에 대해 속기록 삭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제삿상 올리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비판했고 홍 의원은 "그럼 그것을 뭐라 표현하면 좋겠느냐"고 따져 충돌 일보직전까지 갔으나 위원장의 중재로 더 이상의 대답은 벌어지지 않았다. sanghwi@news1.kr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여 '친박의 복귀'...총선 파워게임 본격화 서곡되나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절차를 제대로 밟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고 평가했다. 정의장은 이날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이선근) 초청 토론회에서 "국정이나 검정으로 가느냐의 문제보다 논의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정부의 고시 절차를 중단하라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절차)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바로 잡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통합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행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와 관련,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분권형으로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정치의 틀을 결정짓는 권력구조, 선거제도, 공천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욕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정당이 당장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제'로 가야 한다"면서 "19대 국회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에는 늦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 질서가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총선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늦었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고, 현재의 의원 정수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용현**  
교정 전문의

#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방지, 피로방, 탄력, 밝은 오븐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의 탄력을 지켜주는 효제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화장품  
컨설팅/마케팅/모텔  
**홍은희**

# 일 자위대 논란 속 오늘 한-미-일 실무협약...3대 관전 포인트

북 미사일 공격 등 유사시 일 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한 특정 상황들 논의될 것  
북한영역에 대한 한일 간 인식차와 한일 군사협정 체결도 거론될 가능성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세나라가 22~23일 이틀간 일본 도쿄의 방위성에서 안보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세 나라 국방부의 차장급(준장)을 수석대표로 한 이번 실무회의에서 각국은 공동의 안보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의 3대 관전 포인트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상 사례, 일본 자위대의 북한 내 진입과 관련한 한국 동의 및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 한일 간 군사지원협정 문제 논의 상황 등이다.

이와관련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에서의 활동 가능성에 대한 각국 간의 견해 차이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 하에 활동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 나라 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우리 국방부는 △유사시 한국 내 일본 민간인 소개(疏開)작전 △주일미군과 괄기지, 미 본토로 날아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주일미군과 미 증원전력 등에 대한 해상 호송작전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몇가지 사례를 구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북한을 한국의 영토로 볼 것인지와 관련한 한일 간 인식차가 얼마만큼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이 대한민국 헌법상 한

국의 영토인만큼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시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북한을 한국 영토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을 최근 표출했다.

이와관련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며 과장을 일으켰다.

자위대의 북한 진입을 두고 한일 간 인식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이번 실무회의에서도 양국 간 이같은 인식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간 입장차이 속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드러낼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일본의 자위대 활동 범위를 넓혀준 미국 입장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려는 우리 정부 입장에 순



지난 5월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고 있는 한미군 국방부 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왼쪽),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히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한국 내 여론까지 고려해 일단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GSOMIA)이나 상호 군사지원협정(ACSA) 체결 필요성이

인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협정과 관련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다만 미국이 한일 간 협정체결에 힘을 실어줄 경우 진전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bin1981@news1.kr

##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일 자위대 활동 논의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한미군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은 이날 일본의 안보법제를 포함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둔 논의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동 보도문에 담았다.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은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동아시아 정세, 테러 등 글로벌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지역 및 세계에 있어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지난달 성립된 일본의 안보법제를 포함해 양국 국방정책의 최근 진전에 대해 상호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와관련, 일본의 안보법제에 대해 설명하고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지난 4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시

천명한 '미·일동맹의 기본적인 틀 유지'와 일본의 활동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미군 장관은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한 장관은 특히 자위대가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영역 진입 시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을 한국의 영토로 볼 것인지) 한·미·일 3국이 앞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 재개를 비롯해 오는 11월 자위대의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는 데 대해 합의했다.

일측은 한 장관이 내년 중 일본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한 장관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in1981@news1.kr



한미군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왼쪽)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최재천 "일 방위상 '휴전선 남쪽만 한국, 애국보수 어디 숨었나'"

(서울=뉴스1) 조소영, 박응진 기자 =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2일, 한일 국방장관이 지난 20일 가진 회담 당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동의 없는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어딤나. 국가보안법, 헌법을 아버지모시는 애국보수는 어디에 숨었나"라고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한다. (그런데) 한반도 분단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범위는 '휴전선 남쪽 강변'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 "역사적·헌법적으로 한반도 전역 주권은 대한민국 시민이 절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다만 통일로 나아가는 잠정·특수적 관계란 1991년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한다"며 "이런 경우, 정부·여당·애국보수에게 묻는다. 1948년 8·15를 건국절이 아니라 분단절이라고 불려도 상관없느냐"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일본의 국제법 해석과 현 정권협정 체제 하에서 중국 등 개입이 필연적인데, 북한 지역 주권 확보 전략이 무엇이나"를 비롯해 "작계5015는 북한지역에 어떤 방식을 예정하는지, 한미합동작전 시나리오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영토주권을 확보하는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부·여당의) 일본의 군사적 대응에 관한 유연성 확대 시도, 군사주의적 발상을 철저히 경계한다"고 경고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무능"이라며 "통일한국에 대한 미래비전 없이 한미동맹을 북측까지 확대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발언,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갈등을 애써 외면하는 외교부 장관, 자위대의 북(北) 진입 발언을 막으려는 국방부 장관, KFX(한국형전투기) 사업 총체적 부실과 중심에 선 청와대 안보실장"이라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한편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21일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학제개편'을 제안한 데 대해 "교육에 대한 철학과 빈곤의 부재다. 심각한 저출산 원인은 누구나 인정하는 극도의 열악한 사회적 기본권의 부족"이라며 "그런데 고작 학제개편으로 해결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은 모든 것의 사유화와 개인 책임보다는 나라와 공공의 책임을 더욱 강화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가까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콩나물, 보쌈, 육육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Seoul Seolngtang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Seolngtang.com

**서울 Seoul**  
Seoul Food & Bar  
서울 or Udon 111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5.8888  
SeoulFoodBar.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퍼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분/여자컷 30분/피마 70분 부터  
디지털 130분 부터/개막팅 헤어 220분 부터 시작합니다.

광학 연구원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배경은**  
Kalin Bae  
617-981-1542  
kbae@HammondRE.com



**주윤희**  
Ilmi Joo  
508-641-8924  
ujoo@HammondRE.com



LEXINGTON  
...\$ 2,999,900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간 \$2billion 이상 매출을 올리는 부동산!  
보스톤 글로브지가 선정한 'Top Place to Work'에 뽑힌 유망한 부동산!  
38년 전통의 보스톤을 대표하는 Hammond 부동산!  
18개의 지점과 400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여러분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한인사회와 함께 걸어온 길,  
보스톤코리아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민주 평통 보스톤지역 협의회

# 10th Anniversary

축하합니다

한인사회와 함께 걸어온 길,  
보스톤코리아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 HAPPY

##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광만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지귀 케이크
- 국산산 유기점心和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다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mailto:Happydolsang@gmail.com)



## 크라우저 앤 서 로펌

###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http://www.suhlawyer.com)

##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mailto:info@stevesuh.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40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부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629,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416 sf.  
New HVAC system 2015  
New Roof 2007,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629,900  
Sharon, MA  
4 Beds, 2.5 Bath, 2436 sf.  
새집보다 좋은 집  
편리한 교통,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399,000  
Sharon, MA  
4 Beds, 2 Baths, 1410sf.  
플레이 룸, 오피스가 있음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 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69,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560,000  
Boston, MA  
1 Bed, 1 Bath, 709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

Condo-Townhouse  
\$273,900  
Maynard, MA  
2 Beds, 1.5baths, 1930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5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Jay Lee 781-654-5281

Restaurant  
\$225,000  
Boston, MA  
5년된 샌드위치 스토어  
Jay Lee 781-654-5281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8년 14년 / 2008년 14년 / 2008년 14년 / 2008년 14년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617-899-3566

<b>Restaurant</b>  \$350,000 <b>Cambridge, MA</b>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225,000 <b>Boston, MA</b> 5년된 큰 샌드위치 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 Lee 781-654-5281	<b>Full Plant Cleaner</b>  \$180,000 <b>Salem, MA</b>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b>Restaurant</b>  \$499,900 <b>Brookline, MA</b>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Business Consulting</b>  <b>레스토랑 셋업 컨설팅</b> SJ Park 617-304-7001	<b>Commercial</b>  <b>커머셜 건물 투자</b> SJ Park 617-304-7001	<b>비즈니스 빈자리</b>  <b>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b> SJ Park 617-304-7001	<b>병원건물</b>  \$860,000 <b>Worcester, MA</b>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b>Coin Laundry</b>  \$55,000 <b>Brookline, MA</b>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9,900 <b>Newton, MA</b>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Drycleaner</b>  \$19,000 <b>Norwood, MA</b>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Drycleaner</b>  \$475,000 <b>Quincy, MA</b> 10개월된 새 장비 매상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 401-935-3397
<b>Investment</b>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9	<b>Restaurant</b> \$290,000 <b>Somerville, MA</b> Famous Restaurant, As-is SJ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440,000 <b>Boston, MA</b> Well-Established, As-is SJ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915,000 <b>Providence, RI</b> Famous Restaurant w/ Liquor 이현주 401-935-3397
<b>Restaurant</b> \$490,000 <b>Boston, MA</b> 발전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b>Full Plant Cleaner</b> \$260,000 <b>Chelmsford, MA</b>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8,000 <b>Cambridge, MA</b>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b>APT Rental</b>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버스(Overseas)**  
 617-202-3808  
 131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www.Overseas.com

365일 캐주얼  
 예약 관례합니다.  
 24시간 예약 가능합니다.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www.Stevesuh.com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Vol. 11 No. 42 October 23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309

본촌

123 Brighton Ave #300, Allston, MA 02134  
 (617) 254-8888  
 www.bonchon.com

Welcome, 한국말을 3시 30분 TV 무제한 시청

언하는 한국 방송 언하는 시간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한다

티보 플레이어의 특별한 장점

회비를 비교해 보세요  
 10 TV 299만 원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서비스  
 50%로 낮추고 24시간 24시간 무제한 시청

방송3사와 케이블 합병 계약  
 중국형! 24시간 시청하세요

무제한 시청 할 \$39.9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올스톤 브라이튼 애비뉴에 위치한 본촌은 해마다 메뉴가 새롭게 업데이트 된다. 보스톤대학교, 보스톤칼리지, 하버드대학교, MIT의 많은 학생들이 시간대에 관계없이 들락거린다.

본촌 앞에서 치킨을 테이크 아웃 해가는 한 대학생 스펜서 씨는 "나는 흑인이다. 흑인들은 치킨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동네에 오면 항상 본촌에 들려서 치킨을 사간다. 중독이라도 된 듯 몸이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크리스피 연어 샐러드는 맛도 환상이지만 모습 또한 먹음직스러워 사진도 찍기 전에 맛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했다.

본촌의 한식 메뉴는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춘 것이기에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본촌에는 웬만한 한국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음식들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찾아보기 힘든 알탕도 본촌에서 맛볼 수 있다.

매니저는 혼혈계로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해 가끔 한국 손님들도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본촌은 식당 안도 시끌벅적 하지만 테이크 아웃과 배달 주문 또한 끊임이 없다. 본촌은 차이나타운까지 배달이 가능하다.

본촌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12시까지이고 일요일은 저녁 11시까지이다.

jham@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예배 10PM, 날마다 사 유포일

bgabc.org

40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6.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본촌에는 흑인, 백인, 한인, 중국인, 중동인 등 많은 손님들이 찾는다. 이 뜻은 여러 인종들에게 인정 받은 맛이라는 뜻이다.

본촌의 인테리어는 치킨 집이라 하기엔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특별히 빨간색과 금색 조명은 중국 손님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본촌에서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번 10월달에도 본촌에는 새로운 메뉴가 등장했다. 새로운 메뉴는 부대찌개, 치즈 돈가스, 갈비 등이다. 본촌에는 그 유명한 치킨 외에도 스키 롤과 다양한 샐러드 등 수많은 에피타이저들이 있다. 그 중



본촌의 유애나 매니저는 "본촌은 새로운 메뉴를 위해 항상 발전하고 있다"며 "오붓한 가족끼리 외식을 즐기기도 딱 알맞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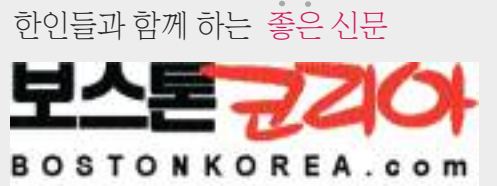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청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네)	603-889-8201
뉴잉글랜드클럽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주회	978-902-8305
NE교역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400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치 앤 앨리교회	978-274-235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형태역점	978-975-3303
장음식주문	617-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뷰티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스미덴탈그룹	781-391-5606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코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 기타



## '마션'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흥행 포인트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4일 '마션' 배급사인 이십세기폭스코리아에 따르면 '마션'은 지난 12일 영국을 제치고 놀라운 흥행 수익을 거뒀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전세계 최강의 IT강국의 면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SF영화에 남다른 애정과 과학을 향한 깊은 안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대한민국 관객들이 직접 선택하고 강력 추천한 흥행 포인트를 전격 공개한다.

대한민국 관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다 미국에 이어 전세계 흥행 2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첫 번째 비결은 바로 SF를 향한 열망이다. '인터스텔라', '그래비티'에 이어 최고의 웰메이드 SF블록버스터 탄생을 알리는 '마션'은 최근 가장 강력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화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화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극대적인 상상력의 배경이 바로 우주이기에 그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며 SF영화의 흥행 불패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 특히 최근 NASA가 화성에 소금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했다는 발표와 맞물려, 대한민국 아리랑 9호 및 나로호 등 관련 우주 천문학적 이슈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전세계를 뒤흔든 흥행을 견인했다고 보여진다.

가장 쉽게 과학을 만난다, 에듀테인먼트 무비로 각광  
기존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 중, '마션'은 가장 쉽게 과학을 풀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자를 키우거나, 물을 만들거나 기본적인 과학적 상식을 접목 시켰기에 어린이부터 중장년 층까지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영화를 통해 전해준다. 2015년 최고의 에듀테인먼트 무비로 등극한 '마션'은 실제 NASA 소속 우주과학자와 우주비행사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완성된 작품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자문을 맡은 NASA의 루돌프 슈미트 박사는 영화를 통해 과학의 핵심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 '마션'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음악까지 긍정적, 디스코음악과 SF블록버스터의 만남

'마션'은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마크 와트니만큼이나 재치 넘치는 선곡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영화 속 아레스 3 탐사대의 리더 멜리사 루이스가 우주에서 듣기 위해 가져온 곡들은 모두 70년대를 풍미했던 디스코 음악과 올드팝으로 장식한다. 특히 Vicki Sue Robinson의 곡 'Turn The Beat Around' 및 The O' Jays의 'Love Train' 등 디스코 음악 외에도 명불허전의 Donna Summer의 'Hot Stuff'와 David Bowie 곡인 'Starman' 등 주옥 같은 명곡들이 긍정적인 기운을 더 북돋아준다.

이 같이 홀로 남겨진 마크 와트니는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을 참아가며 음악을 들지만 그의 고군분투 위로 흐르는 절묘한 디스코와 올드 팝은 분위기를 대 반전 시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전해준다. 마지막으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 엔딩 크레딧 곡은 이 영화의 절대적인 메시지를 대변해주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 '도리화가' 수지, 조선 최초 여류소리꾼 변신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영화 '도리화가'가 11월 25일 개봉을 확정지었다.

'도리화가' 측은 20일 조선 최초 여류소리꾼의 탄생을 알리는 드라마틱한 티저 예고편과 포스터를 공개했다. '도리화가'는 1867년 여자는 판소리를 할 수 없었던 시대, 운명을 거슬러 소리의 꿈을 꾸었던 조선 최초의 여류소리꾼 진채선(배수지 분)과 그를 키워낸 스승 신재효(류승룡 분)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도리화가' 티저 포스터는 판소리는 남자만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 판소리 대가 신재효가 설립한 조선 최초의 판소리학당 동리정사에 처음으로 한 소녀가 나타난 순간을 포착했다. 오직 소리가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대의 금기를 깨고 판소리에 도전하는 앳되고 풋풋한 모습의 진채선은 여자는

발조차 들일 수 없었던 동리정사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활짝 웃고 있다. 진채선과 달리 근엄하고 묵직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동리정사의 수장 신재효와 소리선생 김세종(송새벽 분), 문하생으로 분한 이동휘, 안재홍의 특별한 순간을 기념한 티저 포스터는 각기 다른 표정 만큼 이들에게 펼쳐질 다채로운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특히 역사 속 실제 존재했던 동리정사 안에 살아 숨쉬던 실존 인물로 변신한 배수지와 류승룡의 새로운 모습, 거기에 어우러진 '조선 최초의 판소리 학당, 소리가 운명인 소녀가 나타나다'라는 카피는 '도리화가'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예고하며 기대를 증폭시킨다.

ppbn@news1.kr



## '송곳' PD "원작의 강렬함, 넘어설 수 없다"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김석윤 PD가 원작에 대한 극찬을 했다.

김석윤 PD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크리스탈 볼룸홀에서 열린 JTBC 새 드라마 '송곳'(극본 이남규 김수진/연출 김석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원작을 넘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워낙 그 작품이 강렬하고 모든 것을 담아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작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초반에 좀 더 밝게 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송곳'은 동명의 유명 원작 웹툰을 토대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오는 24일 토요일 저녁 9시40분 첫 방송.

reddgreen35@news1.kr

## 김구라 전현무, '무한도전' 바보 어벤져스와 만났다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김구라 전현무가 '무한도전' 바보 어벤져스와 만났다.

최근 진행된 MBC '무한도전' 촬영에서는 '뇌가 순수한 남녀'로 결성된 '바보 어벤져스'와 연예계 뇌섹남으로 손꼽히는 김구라, 전현무와의 만남이 성사됐다.

당시 녹화에서 김구라와 전현무는 하하와 황광희, 흥진경, 채연, 은지원, 김종민, 심형탁, 간미연, 솔비, 박나래 등 '바보 어벤져스' 구성원들을 맞닥뜨리자마자 그들을 겨냥한

독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어벤져스의 스펠링은 아느냐", "상대를 잘못 골랐다" 등 거침없는 공격으로 '바보 어벤져스'를 분노케 했다.

이에 자극받은 '바보 어벤져스'는 꼭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종 대결 무대에 올랐다. 과연 이들이 박학다식하기로 소문난 김구라와 전현무를 이기고 명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한편 김구라, 전현무 출연분은 오는 24일 저녁 6시25분 방송된다. star@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5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26.7%
2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6.4%
3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21.8%
4	MBC	수목미니시리즈(그녀는예뻐다)	16.7%
5	KBS1	KBS9시뉴스	16.3%
6	SBS	일일드라마(돌아온황금복)	15.0%
7	MBC	주말드라마(엄마)	14.8%
8	MBC	무한도전	13.7%
9	SBS	아침연속극(어머님은내며느리)	13.5%
10	KBS2	해피선데이	12.9%

##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2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3	MBC	아침드라마(이브의 사랑)
4	SBS	일일드라마(돌아온 황금복)
5	KBS2	TV소설(별이되어버턴나리)
6	MBC	수목미니시리즈(그녀는예뻐다)
7	MBC	월화특별기획(화려한유혹)
8	MBC	주말드라마(엄마)
9	SBS	주말특별기획(애인있어요)
10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No Make Up	Zion.T
02	I (Feat. 버벌진트)	태연
03	또 다시 사랑	임창정
04	바람이나 좀 쐬 (Feat. MIWOO)	개리
05	어깨	소유, 권정열
06	취향저격	iKON
07	보통연애 (Feat. 박보람)	박경 (블락비)
08	U R	태연(Taeyeon)
09	겁 (Feat. 태양)	송민호
10	커피 (Prod. by G-Park 박명수)	유재환, 김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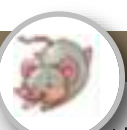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5		4					
	4	2	6			1		
	6		5	2		4		8
9		5			4			
			9	5	2			
8			8			5		7
4		1		9	5		6	
		8			1	2	5	
					6		4	

10월 25일 - 10월 31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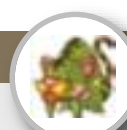
### 쥐띠 | 내일을 위한 노력을

● 운수: 끈기와 인내로 버티면서 내일을 위한 노력을 할 때입니다. 계약이나 매매는 차후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다소 융통이 되나 아직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애정: 바라던 것과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8, 31일 길일. 25, 30일 주의.



### 소띠 | 강인함보다는 유연하게

● 운수: 대인관계에서 강인함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내편으로 만들 수 있고 승산이 있습니다. ● 금전: 득실을 결정지을만한 일이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만 원만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애정: 자신도 거역할 수 없는 힘줄림에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마음을 주지 않던 사람이 드디어 짝을 만나게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6, 27일 길일. 25, 3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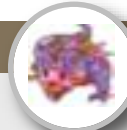
### 범띠 | 무지개가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는

● 운수: 행운의 여신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 금전: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부지런히 뛰어다니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게 시작합니다. ● 애정: 소나기가 내린 뒤에 무지개가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환해집니다. 어려움 뒤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5, 30일 길일. 26, 2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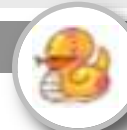
### 토끼띠 | 수입이 늘게 되는

● 운수: 획기적인 사업구상이 떠오릅니다.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의 일이나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거나 반가운 제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새 일을 만나게 됨으로써 수입이 늘게 되는 시기입니다. ● 애정: 애태우던 임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받으니 반갑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자손으로 인한 경사도 있겠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6, 29일 길일. 27, 2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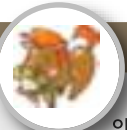
### 용띠 | 때를 기다리면서

● 운수: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하면 다된 일을 스스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실리를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금전: 인간관계의 변화로 인해서 금전문제는 다소 곤란을 받았으나 차차 해결되어 나갑니다. ● 애정: 남에게 의혹을 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행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7,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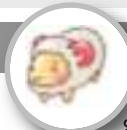
### 뱀띠 | 마음의 문을 열어라

● 운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장이라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녹스는 법입니다. ● 금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계획을 세우세요. 무리하게 큰 것을 바라다가는 작은 것조차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군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8, 31일 길일. 26, 29일 주의.



### 말띠 | 활기찬 내일을 준비하는

● 운수: 새로운 희망이 생기면서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주위의 도움이 따르고 찾고자 하는 일도 찾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모래를 일어서 사금을 얻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짝퉁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그동안의 고독감에서 벗어나 활기찬 내일을 준비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로부터 프러포즈도 받게 되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5,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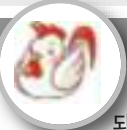
### 양띠 | 마음에 휴식을 주고

● 운수: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세상만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지쳐있는 마음에 휴식을 주세요. ● 금전: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이윤을 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게 됩니다. ● 애정: 마음은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마음을 잡기가 어렵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6, 30일 길일. 25, 28일 주의.



### 원숭이띠 | 행복감을 느끼게

● 운수: 사업상으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인과 함께 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진지한 말을 주고받게 됩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호운을 만나니 만사가 잘 풀리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급한 마음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 애정: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생활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7, 31일 길일. 26, 2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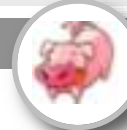
### 닭띠 | 열 효과보다는 약처 하나가 낫다는

● 운수: 다른 일을 해보려는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일에 만족하고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 금전: 자신도 모르게 자꾸 손익을 따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 애정: 자식이 해줄 있는 것과 배우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 효과보다는 약처 하나가 낫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8, 31일 길일. 27, 30일 주의.



### 개띠 |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 운수: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야 할 단계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서 일처리 하도록 합니다. ● 금전: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 애정: 일부러라도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에 몰두하다보면 자신을 붙잡고 있는 온갖 잡념에서 빠져나오기가 쉬울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9, 30일 길일. 28, 31일 주의.



### 돼지띠 | 역전될 수 있으니

● 운수: 손식간에 사태가 역전될 수 있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 금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잘 다지고 다시 일어날 생각만 하세요. ● 애정: 그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끝내야 합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주변 사람들이 상처 입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30일 길일. 26, 29일 주의.

## "일상 생활이 힘들었다"...이태임, 욕설 논란 그 후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이태임이 7개월 만에 복귀작 '유일랍미'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예원과 지난 3월 욕설 논란이 일었던 이후 처음으로 복귀작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녀의 근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 현대백화점 유프렉스 제이드홀에서 DRAMA H 목극드라마 '유일랍미'(극본 윤소영 / 연출 이정표)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이태임을 비롯해 배우 오창석, 이민영, 유일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자는 "드라마와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며 조심스러워 하는 입장을 보였다. 드라마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태임의 과거 논란이 다시 크게 부각될까 우려하는 모습이였다.

하지만 이태임은 복귀작 선택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하며 "그 논란에 대해 많이 내려놨다"고 고백했다. 이에 이정표 감독 역시 "사실 처음에 이태임의 이미지를 걱정했었지만 촬영장에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다"고 추켜세웠다.

이태임은 "(논란이 있던 후) 처음



에는 일상 생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며 "마음 추스르기가 힘들더라. 쉬면서 영화 나오는 거 다 보고 운동도 열심히 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점점 좋아졌다.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무엇보다 작품에 임하는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딱진 머리에 화장이 없는 민낯으로 백수 캐릭터를 연기하는 이태임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작품 선택을 하게 된 동

기는 워낙 하고 싶었던 역할이었다"며 "그간 암울한 캐릭터를 많이 맡았는데 밝고, 즐겁고, 명랑하고, 쾌활한 역할을 맡고 싶었다. 맡고 싶은 역할 맡아서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있다"고 행복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유일랍미'는 의도치 않게 남자 행세를 하게 된 여자가 SNS상에서 전설의 연애고수가 되어 연애전무 최강 짜질남을 환골탈태 시키는 연애 사육 프로젝트를 그리는 드라마다. 오는 29일 낮 12시30분 첫 방송된다.

aluem\_chang@news1.kr



## '그녀는 예뻐다' 최시원, '각종 차트 1위'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최시원이 MBC 수목드라마 '그녀는 예뻐다'(연출 정대윤/극본 조성희) OST에 참여해 부른 솔로곡 '너뿐이야'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22일 0시 각종 음악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최시원의 솔로곡 '너뿐이야'는 Mnet, 올레뮤직 1위를 비롯해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라 최시원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인기를 실감케 했다.

최시원이 부른 '너뿐이야'는 혜진(황정음 분)을 향한 장난기 많은 신혁(최시원 분)의 절절한 가슴앓이와 진지하고도 진심어린 고백이 담겨 있는 감

성 발라드 곡으로, 지난 22일 방송된 10회에 김신혁의 테마곡으로 처음 삽입돼 극의 매력을 한층 배가시키며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최시원은 '그녀는 예뻐다'에서 자연스럽고 능청스런 연기로 연일 시청자들을 '신혁앓이'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에 회가 거듭 될수록 최시원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시원이 출연하는 '그녀는 예뻐다'는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aluem\_chang@news1.kr

## '해투' 유진, SES 시절 추억 담긴 다이어리 공개

(서울=뉴스1스타) 백초현 기자 = 배우 유진이 SES 시절 사진을 공개하며 추억을 자극했다.

조보아는 22일 밤 11시20분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유진의 집에서 다이어리를 찾아

냈다. 유진의 다이어리에는 가수 소이와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은 물론이고 SES 멤버들의 사진이 스크랩돼 있었다.

유진은 SES 데뷔일을 꼼꼼하게

적어 놓고 1위 당시를 기록해 추억을 자극했다. 유재석은 유진 다이어리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이 발견되자 "가려주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poolchoya@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이 National Grid와 EverSource보다 싸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서비스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감독관 면제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tailer로서 현재 미국 18개주에 있는 70유리터 구역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대표  
더 자세한 내용은 www.xoomenergy.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266.7245**  
한국어 상담 : 예선호 이사장 / energy@xoom-energy.com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HB • GDT • LMSB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백사후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포항포로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먹쥐고' 김병만, 무협 예능 1인자의 소림사 도전기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김병만이 SBS '주먹쥐고 소림사'로 토요일 저녁 안방극장을 찾아가는다. 최근 방송 안팎으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건강한 웃음은 물론 감동과 놀라움까지 선사하고 있는 '독보적 캐릭터의 소유자' 김병만이 다시 한 번 소림 무술에 도전한다. 지난 2014년 설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 선을 보여 큰 관심을 받았던 '주먹쥐고 소림사'가 SBS 새 토요 예능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며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파일럿 프로그램 방송 당시 김병만은 프로그램의 주축을 이끄는 인물로 직접 소림사에 방문해 무림 고수들에게 무술을 전수 받는 긴장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물론이고, 혹독한 훈련 과정 속에서 스스로 밤잠까지 줄여가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고난도 동작들을 습득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바 있다.

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강인함과 노력을 통해 예능계에 유일무이한 캐릭터를 만들어 온 김병만. '주먹쥐고 소림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소림사에 입성하며 유 경험자로서 얼마나 진화된 캐릭터와 내공을 보여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 티보플레이 10월 3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부탁해요, 엄마      |
| 2  | MBC  | 내 딸, 금사월      |
| 3  | MBC  | 이브의 사랑        |
| 4  | SBS  | 돌아온 황금복       |
| 5  | KBS2 |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
| 6  | MBC  | 그녀는 예뻐다       |
| 7  | SBS  | 화려한 유혹        |
| 8  | MBC  | 엄마            |
| 9  | SBS  | 애인있어요         |
| 10 | KBS  | 가족을 지켜라       |

#### 티보플레이 10월 3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CJ E&M | 제다이: 제대로 다루는 이슈 |
| 2 | SBS    | 더 랠리스트          |
| 3 | SBS    | 주먹쥐고 소림사        |

#### 티보플레이 10월 3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서부전선 | 설경구/여진구 |
|---|------|---------|

### '서부전선', 허를 찌르는 유머 '압권'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서부전선"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천성일 감독은 이전 '7급 공무원',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드라마 '추노' 등의 각본에서 허를 찌르면서도 유머를 보여주며 필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서부전선"은 농사짓다 끌려온 남한군(설경구 분)과 탱크는 책으로만 배운 북한군(여진구 분)이 전쟁의 운명이 달린 비밀문서를 두고 위험천만한 대결을 벌이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 설경구와 여진구를 비롯 이경영, 정인기, 김원해, 정성화 등이 출연한다.

uu84@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본문에 기재된 최신 영화, 드라마는 티보 플레이 회원만 시청 가능합니다. (본문 참조) © 2015 The Best Demand, TBO. All rights reserved. TBO Play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ec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플리너 : 맥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2. 보스톤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300,000**
3.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5. 약세사리 카트 : 큰 물안에 위치함. 보스톤 북부. 안정적인 수입. **\$55,000**
6.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교. Rt 9 인접. 근처 Chestnut Hill 쇼핑몰과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2,950**
8.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Unit 2, Brighton. 4 Bed 2 Bath 2,379 s.f 히팅,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19회

**보스톤코리아 창간 10주년과 더불어...**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먼저 보스톤코리아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욱 번창하길 기원한다.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이라는 케츠 프레이즈 아래 보스톤코리아는 한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10년을 겪어온 것이다. 참으로 자랑스럽기 그지없다. 다른 타 주에 비해 한인 인구수가 적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신문사를 이끌며 여기까지 이어온 보스톤코리아 발행인이면서 편집장 역할을 함께 해오고 있는 장명술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금까지 달려온 발걸음이 그리 쉽지 않은 길이었으리라 짐작 아래 더욱 자랑스러운 마음이다. 이토록 자신의 열정과 혼신을 가슴에 담았기에 가능했으리라.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그 어떤 삶의 모양과 색깔일지라도 그 어디에 치우치지 않으려 애쓰며 함께 나누었다는 생각을 한다. 굶은 일 즐거운 일 가리지 않고 가깝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기쁨은 함께 나눠 더욱 기쁘고 슬픔은 함께해서 더욱 작아지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누가 시켜서 한다면 어느 누군들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남이 선뜻하지 못하는 일을 마다치 않고 묵묵히 기다림으로 한 세월이 오

늘의 보스톤코리아를 더욱 탄실하고 굳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희망찬 얘기들로 가득찼으면 좋겠다.

보스톤코리아가 10주년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보스톤코리아와 나와 인연 맺어진 것 또한 10년이 된 것이다. 그리고 보니 칼럼을 시작한 지가 만 10년이 되었다. 보스톤코리아 창간 10주년과 더불어 나 자신의 삶도 그대로 보스톤코리아와 함께 지내왔다는 생각이다. 그저 소소한 일상의 작은 얘기들을 모아 부족하지만, 여러 독자와 함께 나누며 내 삶을 되돌아보게 했으며 앞으로의 삶을 또 계획하게 하고 열심과 열정을 갖게 한 것도 보스톤코리아와의 인연 덕분일 게다. 가만히 생각하니 보스톤코리아는 내게 참으로 귀한 인연이다.

10년이란 세월 속에 우리 가정사가 그대로 보스톤코리아 안에 들어 있지 않은가. 세 아이도 그 속에서 컸으며 남편과 함께 지지고 볶았던 추억들도 모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어려서는 한국 사회를 잘 몰라 우리 엄마는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와 사진 담기를 좋아하는가 보다 했던 모양이다. 대학을 졸업하

며 사회 안으로 한 발짝씩 발을 디더가며 엄마가 한국 신문에 칼럼을 연재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해온다. 10년이란 세월 속에 자신들을 키우며 바쁜 시간에 글을 쓰고 매주 칼럼을 연재한다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몇 년 전, 한국 식당에서 참으로 기분 좋은 기억이 하나 있다. 보스톤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내 얼굴을 가만히 보시더니 어디서 많이 본 인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시더니 이내 신문에서 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당신은 저 멀리 커네티컷에 살고 계시는데 그 먼 곳까지 보스톤코리아 뉴스가 전해지는 모양이다. 참으로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그 멀리서도 독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누르기 어려웠다. 그저 한 가정의 주부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로서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일 뿐인데 응원을 해주시니 힘이 절로 난다.

보스톤코리아와 함께한 10년의 세월 덕분에 나 자신의 삶도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한국의 문학행사와 사진행사가 있을 때도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찬

사를 얻었으며 1년에 한 차례씩 대학교와 대학원의 특별강의도 3년째 연이어 하게 되었다. 이 모두가 보스톤코리아의 장이 있어 나의 열정과 꿈을 맘껏 펼칠 수 있었으며 부족한 사람의 글을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며 응원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보스톤코리아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 보스톤코리아와 더불어 독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의 장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무엇보다도 보스톤코리아 창간 10주년을 맞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나 역시도 10년의 세월 속에 함께 걸었고 또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야 할 한가족인 까닭이다. 그러하기에 더욱 쉬지 않고 공부하고 열심과 열정으로 노력하는 글쟁이가 되도록 독자들께 약속을 드린다. 일주일마다 만나는 작은 활자 속에서 무엇인가 기다림으로 남을 수 있는 이 지역 한인 사회의 탄실한 기동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기원한다. 얼굴은 알 수 없지만, 지면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그런 '진실한 소통의 장'이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러브 스토리**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정녕 가을이다. 사랑이야기를 만들기 좋은 계절이다. 보스톤은 가을도 황홀하다만 너무 짧다. 사랑은 아름다운데 너무 짧아 마냥 아쉬운 거다. 보스톤의 가을을 즐기시는지?

칠십년대 초반이다. 케이비에스 주말의 영화를 흑백으로 볼 적이다. 개봉영화 상영관에서 영화 '러브스토리'가 상영됐다. 국제극장이던가? 극장입구엔 커다란 간판이 걸렸을 게다. 갈색 장발의 젊은 라이언 오닐 가슴에 비운(悲運(?)의) 여주인공 제니가 기대고 있는 그림이었다. 나는 이 영화를 개봉관에서도 동시 상영관에서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극장 간판만은 또렷히 기억한다. 지방 고등학교에 다닐 적이었으니 말이다. 세월이 한참 지난후, 미국에서 비디오로 봤던가? 그 시절 한국 동시상영관에 지린내났고, 필립은 자주 끊겼다. 화면에 비(?)가 역수같이 내렸다. 게다가 빨리 스쳐가는 자막을 따라 읽기가 어려웠다. 자막은 하

면 오른쪽에 황금색 세로로 씌어져 있었더라.

내게 소설 러브스토리는 영화가 책보다 낫다. 미국에 와서 몇 년 지난 다음이다. 헌책방에 들렀다가 러브스토리의 작가 에릭시겔을 만났다. 그의 책 페이퍼백(문고판) 몇 권을 집어들었다. 그 무렵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 있었다. 게다가 연휴가 겹쳐, 뚜렷하게 할 일이 없었다. 구해 온 책을 읽기 시작했다. '황금과 같은' 긴 휴일을 즐긴 거다. 대충 끼니를 해결하며 읽어댔다. 소파에 누워서 읽고, 침대에 엎드려 읽고, 거실에 앉아 읽었다. 새벽에도 읽고, 한낮에도 읽었고, 늦은 밤에도 읽었다. 이 책이 지루하면, 저걸 들고 읽었다. 이를 후늦은 오후에 밖으로 나갈 일이 있었다. 쏟아지는 가을 햇빛에 햇구역질이 일어났다. 오랜만에 햇빛을 봤기 때문이다.

영화 '러브스토리'는 보스톤이며, 하바드

이고, 눈썹이다. 영화 속에서 눈썹장난하는 장면이 떠오르시는가. 배경음악도 삼삼했지 싶은데, 연애는 춤지도 않다. 추위도 추운 줄 모르는 거다. 영화 '러브스토리'가 겨울이라면, 내 연애는 늦가을이고 낙엽이다. 그해 시월 말경, 아내에게 작업을 걸었고 밑당이 있었다. 가을 같은 연애는 시작된 거다. 덕수궁에 갔고, 옛날식 다방과 삼청공원과 무교동 낚지집과 칼국수집에도 들렀으며, 광화문에서 시내 버스를 탔다. 그러니 우리 연애와 광화문 주변은 가을에 더 각별하다. 러브스토리가 캠브리지와 겨울과 눈썹이듯 말이다. 그해 가을과 겨울 나와 아내는 춤지 않아 오히려 따듯했다.

아내에게 말장난을 걸었다. 라이언 오닐보다 내가 낫지 않나? 청년시절 그런 소릴 이따금 들었기 때문이다. 내 머리가 곱슬에 색깔은 온전히 검은 색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가 미청년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오해 마시라. 아내의 반응은 말하지 않을란다. 말갈지 않은 소리한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내가 제니냐? 라고 되묻는듯 했다. 백혈병으로 아파야겠느냐고 반문하는듯 했던 거다. 하긴 한동안 소녀

들에게 백혈병이 유행처럼 유행처럼 돌아다녔다. 돌림병도 아닐텐데, 환각세계의 병이었다. 영화 속의 여주인공을 닮고 싶었던 터. 몸도 마음도 열에 달뜬 듯 어지러워 현기증나던 시절이었다.

러브스토리 영화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시는지?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게 아니에요). 사랑이 정녕 미안함과 상관없다 해도, 여전히 미안한 걸 어찌랴. 정호승 시인이다.

미안하다/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었다.  
산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었다.  
다시 길이 끝나는 곳에 산이 있었다.  
산이 끝나는 곳에 내가 있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다.  
미안하다/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 중에서, 정호승)  
"주여,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4:10, 공동번역)

HURAM | 성형외과  
Medical Plastic Surgery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뉴스코리아 김소라 972.247.9111 | weeple@newskorea.com

STAR ★ 동안  
 피부과·성형외과

## 대한민국 1등 피부과·성형외과 (구, 이화성형외과)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

안면 거상술, 리프팅, 지방 흡입술, 지방 이식술을 잘하는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외원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탈출)	안면거상술 (목포함)	상안검	하안검	얼개상거름	매몰상거름	얼굴자랑이식 (FRFS포함)	포성형
<del>770만원</del>	<del>660만원</del>	<del>220만원</del>	<del>220만원</del>	<del>166만원</del>	<del>110만원</del>	<del>275만원</del>	<del>330만원</del>
550만원	660만원	132만원	132만원	121만원	88만원	165만원	264만원

부가세(10%) 포함가

-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아우르는 토탈 피부성형미용 원스탑 서비스
- 한국내 최초 항노화 전문 클리닉 개설 전문의 ● 성형수술 후 붓기케어 및 재생관리 서비스
- 모든 수술시 FDA 승인 받은 엄선된 정품 재료사용

Before  
&  
After



- 한국내 최신 레이저 장비 6대 보유
- 메디컬 카어 서비스 (호텔 내 병원 위치)
- 한국내 최초 수술보장제도

리본 부속제디얼그룹  
LIPOBOND GROUP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100%의 예술을 만듭니다!

## 리본성형외과

-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의료무사고 병원
- 최첨단 의료장비 3D 성형 시뮬레이션
- 1mm의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시술



쌍꺼풀  
매울

~~132만원~~

99만원

쌍꺼풀+  
눈매교정

~~330만원~~

220만원

눈썹거상+  
하안검

~~396만원~~

275만원

부가세(10%) 포함가

보스톤 **뉴스코리아**

T. 617-955-9112

HURAM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7. 대평원 전쟁의 서막 (3)

로키 산맥을 넘는 옛길들 (계속)  
이상의 옛길들은 모두 로키 산맥을 넘을 때에 사우스패스(South Pass)를 통과하였다. 마치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고개 중에 문경새재 옛길이 가장 편리하여 많이 이용되었던 것처럼 사우스패스가 대륙분수령 중 가장 완만한 고갯길이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미주리 주의 인디펜던스(Independence)에서 미국 남서부지역의 뉴멕시코 산타페까지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옛길 산타페 트레일(Santa Fe Trail)이 있었다. 이 길도 1880년 이 지역으로 대륙횡단철도가 건설됨으로써 그 기능이 사라졌다.

옛길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역사가 있다. 오늘날 DHL과 같은 특급우편제도 포니 익스프레스(Pony Express)가 1860년 4월에 도입되었다. 모험적인 선구적 사업가들이 말과 기수를 계속적으로 바꾸어 달리게 함으로써 보통우편의 경우 20일 이상이 걸리는 동서 우편 수송시간을 열흘로 단축시켰다. 루트는 오버랜드 트레일, 몰몬 트레일과 캘리포니아 트레일을 따라 갔는데 동쪽 끝은 미주리 주 세인트 조셉(St. Joseph)이었으며 서쪽 끝은 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토(Sacramento)이었다. 우편 배달 트레일의 총길이는 약 3100km이었으며 중간에 184개의 역(이 중 157개는 말과 기수를 바꿀 수 있는 역)이 있었고 기수 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120km를 달렸다고 한다. 1860년 11월 선거에서 링컨대통령이 당선된 소

식을 7일 17시간 만에 전달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는데 이를 특급우편 홍보에 크게 활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861년 10월에 대륙횡단 전신망이 연결됨에 따라 포니 익스프레스의 유용성이 크게 떨어져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 40년 대평원전쟁의 서막

미시시피 강 서쪽에서부터 로키 산맥에 이르는 드넓은 평원에서는 1854년 8월 19일 발생한 그레탄(Grattan) 중위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1890년 12월 29일 벌어진 운디니 대학살 사건에 이르기까지 거의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서부의 땅을 개척해서 정착하려는 백인들과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인디언간에 치열한 전쟁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긴 세월을 걸친 전쟁으로 인하여 양측은 각각 2만 명 정도가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이라는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전투, 잔인하기 그지없는 대학살, 전설적 인디언 영웅의 탄생, 인디언의 완전한 패망 등이 이 시절에 일어났었고,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수많은 문학작품과 영화가 만들어져 대중들에게 인디언에 관한 얘기를 전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 평원 전쟁이 여태까지 있었던 미시시피 강 동쪽에서 벌어졌던 인디언 전쟁과 크게 다른 점은 평원 인디언들이 운송이나 수렵은 물

론이고 전투에서도 말을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총과 화약이 부족하여 활과 화살을 주 무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동력 면에서는 오히려 미군을 능가하였기 때문에 주변 지리에 밝은 이점을 활용하여 게릴라 전법을 효과적으로 펼쳐서 백인에 대하여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북미 대륙에는 원래 말이 없었는데 스페인군이 멕시코로 들여온 말들이 1680년에 있었던 '푸에블로 반란(pueblo revolt)'으로 인하여 스페인군이 떠나게 되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야생마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평원의 풍부한 풀들은 말들에게 훌륭한 먹잇감을 제공하였으므로 말들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났고 인디언들이 이러한 야생마를 잡아 길들여서 활용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40년 대평원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자. 1851년 체결된 라라미 조약(Treaty of Laramie)으로 그 동안 백인과 인디언 간에는 큰 충돌 없이 평화가 유지되는 듯했다. 그러나 1854년 8월에 한 젊은 미군이 쓴 총 한 발로 평화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1854년 여름 약 4000명의 브룰레 수우족이 라라미 요새 주위에 모여 티피 촌을 만들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정부가 인디언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물자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서 인디언들은 굶주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무렵에 8월 17일 몰몬교 이주자들이 수많은 소떼를 몰고 인근의 오리건 트레일을 지나고 있었다. 소 떼 중 한 마리가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 소를 높은 이마(High Forehead)라는 이름을 가진 미니콘주지파(Miniconjou) 인디언이 잡아다가 도살하였다. 그는 당시 손님 자격으로 브룰레 지파의 마을을 방문 중에 있었다.

라라미요새의 선임 장교인 플레밍(Hugh Fleming) 중위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브룰레족의 추장 정복하는 곰(Conquering Bear)을 만나서 범인을 잡아 요새로 데려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디언 추장은 손님으로 와 있는 다른 지파의 인디언에 대하여는 그렇게 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예의상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 대신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말을 몇 마리 주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죽은 소의 주인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현금으로 당시 돈 25달러를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19일 플레밍은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갓 졸업하고 라라미 요새로 부임하여 그 전에 인디언과 접촉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그레탄(John Lawrence Grattan) 소위에게 인디언 캠프로 가서 범인을 체포해서 요새로 끌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레탄 소위는 지시받은 대로 29명의 병사와 어거스트(Lucienne Auguste)라는 이름의 프랑스계 인디언 혼혈인 통역과 함께 인디언 캠프로 가서 추장을 만났다. 그런데 통역을 맡았던 그 혼혈인은 수우 족 말도 서투렀는데다가 미리 겁을 잔뜩 먹고는 가는 도중 계속 술을 들이켰다. (다음 호에 계속)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03 김대문의 '화랑세기花郎世紀' (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도 삼국사기를 인용하면서 김대문이 한 말을 재인용하고 있다.

'고승전'은 유명한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한 책으로 보고 있으며, '화랑세기'는 화랑도花郎徒의 수장인 풍월주들의 세기이다. '악본'은 신라 고유의 음악과 춤에 관한 책으로 보이며, 한산기는 김대문이 한산주 도독으로 재임시 그 고장에서 보고들은 것을 쓴 책이거나 또는 그 지방의 지리나 역사서로 보고 있다. 한산주는 지금의 서울 일대이며, 신라의 5 소경이 확립되었을 때 가장 북쪽에 위치한 소경으로 국방의 요충지였다. 도독은 이찬(2급)에서 급찬(9급)까지의 계급에 해당하는 중앙 관원을 임지로 파견하였다. 이 당시 김대문은 대야찬(5급) 이상의 계급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는 위의 4권의 책 외에도 '계림잡전鷄林雜傳'을 저술하였다.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범흥왕 15년 조에 나오는 이차돈異次頓(148)의 순교 기사記사가 김대문의 '계림잡전'에 의거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그가 집필한 책은 최소 5권 이상이였다. 계림잡전은 역대의 설화를 모은 책으로 삼국사기를 저술할 때 많이 참고하였다. 불행하게도 상기의 모든 책들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할 당시까지 전하고 있어서 김부식 또한 많이 참고하였는데, 이 귀중한 사서들이 그 후로는 어느 사서에도 언급

이 없이 종적을 감추었다. 후일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때도 삼국사기를 재인용하였을 뿐이다. 삼국사기는 1145년에 완성하였고, 삼국유사는 1281년에 완성하였다. 너무나도 아쉬운 점은 현재는 전하는 김대문의 책이 한 권도 없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149)

146) 삼국사기에 보면 한산주도독에 임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사서에 도독은 주의 장관으로 원성왕 원년(785년)에 종래에 총관이라고 부르던 직함을 도독이라고 바꿔 불렀다고 함으로, 김대문이 한산주에 임직해 있을 당시에는 총관이었을 것이다. 또 주의 장관은 급찬에서 이찬까지의 관등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고, 진골만이 한 자리이기에 김대문 역시 진골 출신으로 보고 있다.

147)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승려 일연一然이 고려의 충렬왕7년(1281년)에 인각사麟角寺에서 편찬한 삼국시대의 역사서이다. 2003년에 조선 초기의 간행본과 중종 때의 임신본이 각각 우리나라의 국보 제 306호와 제306-2호로 지정되었다.

148) 이차돈(505? ~ 527) 신라 범흥왕의 근신으로 거차돈이라고도 하며, 삼국유사에는 염족, 이처, 처도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나온다. 신라에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재래 종교와의 갈등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꼽힌다. '계림잡전'(삼국사기에 인용된...)에 보면 범흥왕은 대신들을 모아 놓고 불교를 공인하려고 의논하였지만 대부분이 반대하였는데 이차돈은 찬성하였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불교를 받아드려는 왕의 위엄을 세우고 대신들의 반대를 잠재우려는 계획이었다. 결국 왕은 대신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혼자서 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그를 처형하라고 명하였다. 이차돈은 죽기 직전에 "부처께서 계신다면 이적異蹟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희색의 피가 한 길 넘게 솟구쳤고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꽃비가 내렸다고 한다.

149) 다만 박창화가 필사했다는 '화랑세기'의 필사본이 전한다. 학계에서는 진위논쟁이 있으며, 김대문의 '화랑세기' 진본이 발견될 때까지 필사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진서론자들은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면서 원본을 필사했다고 확인한다. 진서론자들의 고증내용을 보면, 이제는 진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드려서(인정하기가 불편한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화랑도' 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분야의 학문도 함께 발전시키는 편이 좋지 않을까?



# ★ KPOP 90's LEGENDS SUPER CONCERT ★

## ★ Special Promotions ★

**5장 구매시  
무료 티켓 한장 더**

통일가격 티켓을 5매 구매하시면  
같은 가격의 티켓을 한 장 더  
무료로 제공합니다.  
(\$250 티켓 제외)

5:1 프로모션과 단체할인은 교차로  
(718-460-0114)에서만 가능합니다.

**스타들과의  
단체사진 촬영**

공연 후 전 출연진들과  
환자실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250 티켓을 구매  
하신 분들에게 한함)

**단체티켓  
할인 판매**

통일가격 티켓을  
10매 이상 구매하는 경우  
단체할인 가격을  
적용해 드립니다.

**\$200 티켓  
좌석일부 25% 할인**

기존 \$200 좌석을  
일부 한정수량을  
\$150에 판매합니다.

**8PM SAT OCTOBER 31, 2015**



4 Pennsylvania Plaza  
New York, NY 10001

**THE THEATER**  
MADISON SQUARE GARDEN

★ 티켓판매처 [ticketmaster.com](http://ticketmaster.com) / **교차로** 718-460-0114



New Revolution  
Entertainment Inc.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人

## 和 (화)

“화평 (和平)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임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 마태복음 5:9

박근혜 대통령 연봉은 1억 9천 255만원(월 1,605만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일시 금 2,000만원과 매달 월급의 20%를 청년희망기금에 제 1호로 기부했다.

이건희(李建熙) 삼성그룹 회장이 병석에 머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받고 이 '청년희망기금'에 200억원을 기부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사장단과 임원도 50억을 기부한다.

22일 삼성미래전략실 이준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이 "삼성사장단과 임직원이 청년희망기금에 250억원을 기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 부사장에 의하면 "이건희 회장의 200억원은 개인재산이며 평소 인재양성을 중시해온 이 회장의 생각이 나타난 셈"이라한다.

노사정(勞使政) 대 타협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제안해 만들어진 '청년희망기금'은 공익신탁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공익신탁은 납입원금과 운영수익이 모두 기부되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없다.

기부한 금액은 영수증을 받고 세제혜택은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들이 22일 청와대에서 5차 회동을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논의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청와대 접견실에서 비공개회의를 1시간 50분가량 가졌으나 별 다른 결론은 얻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별질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자랑스런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했다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과 여야지도부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엔 뜻을 같이했으나 교과서 국정화엔 의견을 달리 했다는 것"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역사인식은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거대한 절벽을 만난 것 같은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역사교과서 집필자들과 역사학자 대부분이 좌파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들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6.25전쟁에 대해 남북 공동책임이다. 분단도 남쪽책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나라인 것처럼 다 기술하고 있다는 아주 완고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일치되는 부분이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었다"면서 "한마디로 왜 만나자고 했는지 알 수 없는 회동이었다"고

문 대표는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회일정을 전면 중단한다든지 예산심사를 거부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전면적인 국회 보이콧 가능성은 배제했다.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편향되지 않는 좋은 교과서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여당과 야당, 우와 좌, 보수와 진보가 마치 나라를 두 쪽 낼 듯 싸우지 않길 바란다."

역사 기술에서 객관성이 첫 번째 덕목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 그럼에도 이 대원칙이 검인정교과서에서 제대로 지켜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지금 사용중인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나 검정기관이 객관성을 철저히 지켰다면 지금의 좌편향 시비나 우편향 염려는 없었을 것.

정치적 이념에 치우쳐 객관성을 잃었거나

경시했던 교과서 집필자들은 당연히 반성하고 시정해야 한다.

정치와 사회운동에 지나치게 치우친 기술도 다시 손봐야 한다.

정치와 제도, 경제와 사회, 종교와 사상, 학문과 과학기술, 문화와 예술 등 균형 있게 다루어 우리 선조들이 이룬 문화적 업적을 제대로 조명해 학생들이 우리문화에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

국가교육은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와 연결해서 다루고 학생들에게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이해시켜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두 분의 선대(先代)가 친일 독재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며 "그러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 및 정당화 하려는 것"이라고

그러자 새누리당은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인이 빨치산이었는데, 장인 때문에 (역사교과서가) 2003년 개정됐다고 하면 되느냐"고 공격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國定化)를 놓고 입씨름하던 여야가 느닷없이 전 현 대통령과 당대표의 가족사를 들고 나온 것.

박대통령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만주군 중위로 복무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위장도 미화(美化)도 안 되는 사실(史實). 또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에 대해서 1940년대 일제에 대한 비행기 헌납 운동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됐다.

노 전대통령 장인의 죄의 활동문제로 2002년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로 끝난 일.

和화: 順也순야-순종할 화, 또는 화할 화. 和는 ①禾화: 稼之總名가지총명-생(生)곡식화 ②口구: 人所以言食인소이언식-입구. 사람 몸

에 붙어있는 입은 '말도 하고 음식도 먹는다'는 없어 서는 안 되는 절대 부속품이다.

그런데 이 和자의 정자(正字)는 口和화: 順也순화: 禾생곡식화, 좌우로 口(구)가 양쪽으로 붙어 있다.

이 두 입(口)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 물(川)이 흐르듯 사람의 머리(眞)에 흘러 들어 가"야 그 사람이 순(順)해 진다는 진리.

頁혈: 頭也두야, 머리 혈. 이 글자를 풀면 "하나님(一)의 숨결(丿)을 호흡해야 눈(目)에 예수님(二)의 구원(八)이 보인다"는 것.

그러나 和자의 바탕은 "禾화: 稼之總名가지총명-생(生)곡식화". 이 "벼 = 화(禾)는 그림 그대로 인자 예수님(人) 십자가(十) 사랑의 숨결(丿)이 진리의 말씀(口) 그 자체다."

이 "말씀(口)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and the Word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men." - 요한복음 1: 2-4

우리에게,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生命)을 숨쉬는 한 和를 놓쳐서는 안된다."

사랑을 숨쉬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이 영생(永生)을 티 없이 붙여 넣으신 예수님의 和에 연결 되기 위해서... 그래서 숨쉬니까...

나를 위해 사는지 이웃을 사랑하려고 고생하는지를 훑어 보아야 和를 지킬 텐데.

### 어머님&아버님 선물로 안성맞춤

# 효도 라디오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제품**



전원스위치, 볼륨디지탈, 숫자버튼, 비상연락 버튼, 연속듣기, 전국, 미권주파수, 할리우드곡, 재생/일시정지, 다음곡, 다음주파수, 할리우드곡, 라디오, 음악모드 전환

- 숫자버튼을 이용한 호간편 사용법
- USB메모리, TF카드 (MICRO SD)에 저장된 MP3파일 직접재생
- 고성능 FM라디오
- 스피커, 노로복, 넷트, MP3플레이어용의 스피커로 사용가능
- 비상연락 가능
- 할리우드 곡이든 음원데이터
- LED다스플레이 (FM주파수, 음악재생시간, 곡 번호 표시)
- 아이튠즈와 재생 (스트리밍)
- 3W파워스피커 + 3W 하이브리드 루피체음
- 핸드스트랩 기본장착

• 한국 가요  
• 로로복  
• 성경 송양파

**\$69**  
(가요5200곡 또는 성경&찬송가 확립)

**\$79**  
(가요5200곡 + 성경&찬송가)

주문 전화 **보스톤코리아 사업국 617-955-9112**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04) 주식시장의 미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무  
 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겨야만 할 것 같습니다  
 . 달려오는 기차선로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불  
 안하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락하는 시장  
 에서 팔고 나오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이  
 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래의 주  
 식시장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주식시장이 오늘 상승으로 마감할 것인지  
 반대로 하락한 상태로 마감할지도 일단 생각  
 하지 맙시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20일  
 동안 혹은 다음 20개월도 생각하지 맙시다.  
 먼 훗날인 20년 후의 다우 존스가 어떠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미래의 20년 동안 매년 주식시장 평균 수  
 익률은 얼마가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  
 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 과거  
 수익률은 어떠했는지를 알아봅시다. 1926년  
 부터 현재까지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은

10%였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약 18%입  
 니다.

투자자 대부분은 20년 후에는 주식시장이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과거 90  
 년 동안 연평균 10%이었다고 이것이 미래에  
 도 반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를 감안해서 미래 수  
 익률이 7%가 될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20년이란 어떤 분에게는 그때쯤 은퇴할 나  
 이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20년 후 나이가 90  
 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이란 은퇴 시점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갈 때 까지 말  
 합니다. 현재 나이가 70이라고 해도 전 자산  
 의 일부는 20년 동안 장기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우 존스 지수가 16,000입니다. 주식  
 시장이 더 폭락해서 10,000까지 하락했다고  
 합시다. 다우 존스 10,000에서 7%로 매년 증  
 가하면 20년 후에는 다우 존스 지수는 38,000  
 이 됩니다. 과거처럼 10%로 상승한다면

67,000이 됩니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 시점을 항상 생각합니  
 다. 시장이 18,000일 때는 너무 올라간 것 같  
 아서 투자하지 못합니다. 시장이 16,000일 때  
 는 더 떨어질 것 같아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  
 러나 20년 후 다우 존스가 38,000이라고 가정  
 하면 어느 시점이나 투자하기 좋은 시점입니  
 다. 그래서 투자할 돈이 있을 때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다우 존스 지수가 38,000으로 된다면 하락  
 하는 주식시장에서 두려운 마음이 낙관적인  
 마음으로 변화하기를 희망해 봅시다.

우리는 똑같이 일어나는 상황을 어떠한 식  
 으로 보는가에 따라 비관적인 마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낙관적인 마음도 될 수 있습니  
 다.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선 싼 가격으로 투  
 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에  
 선 100%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  
 늘나라로 갈 때까지의 기간과 감당할 수 있  
 는 투자 위험성을 고려해서 주식, 채권, 혹은  
 현금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2014년 경제학자 98%가 미국 이자율  
 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오히려 떨어  
 졌습니다. 2008년에 오일가격이 배럴당 \$145  
 불이었는데 올여름에 \$38불까지 떨어졌습니  
 다. 이러한 기름 가격 폭락을 예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Can you see the future? Prob-  
 ably better than professional forecasters  
 by Jason Zweig, Sep 25, 2015, WSJ)

우리는 미래를 끊임없이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자료가 증명하듯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단  
 기간의 주식시장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지만 결  
 국에는 새로운 기록으로 증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없이 많은 회사 중에서 누군  
 가가 수익을 창출하면 투자자는 이러한 수익  
 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노후대책 마련과 편안  
 하고 걱정없는 은퇴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  
 다.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비자거부

미국 입국 전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하신 경험이 있  
 으실 겁니다. 아마 장담하건데 좋은 기억보다  
 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납득  
 하기 힘든 이유로 비자를 거절당한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여러가지 거절 사유들이 있겠지만 비이민  
 비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  
 나가 214(b) 거부로 알려진 '이민의 의도'가 있  
 다고 판단된 신청에 대한 거부입니다.

비자발급 심사에서 미국 이민법은 모든 비  
 이민 비자 신청자는 미국으로의 이민의도가  
 있다고 가정(presume)하고 심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의 의도가 없다는 것은 신  
 청자들이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이민의도라는  
 presumption을 반박하지 못하고 비자발급을  
 거부 당합니다.

문제는 '이민의도'입니다. 비자사정관들이  
 점쟁이도 아니고 사람 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  
 는데 어떻게 각각의 신청자들이 이민의 의도  
 가 있다고 판단하느냐입니다. 물론 이들이 점  
 을 볼 수도 없고 사람 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  
 습니다. 단지, 법은 몇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민의 의도  
 가 있다고 판단하라고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B1/B2 비자 (흔히 관광/비즈니스  
 비자라고 불리는)의 경우 비자심사의 메뉴얼  
 을 보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고 나와 있습니  
 다.

- 외국 (미국 기준으로)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고 이 거주지를 포기할 의도가 없어야 하며

\* 거주지 의무는E, L, R(종교비자) 신청  
 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미국을 방문  
 할 의도가 있어야 하고

- 입국의 의도가 관광이나 노동이 아닌 한  
 시적 비즈니스의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  
 에 대한 증명과 비행기 왕복 티켓 등을 준비해  
 정해진 기간만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을 증명  
 합니다.

F-1 학생비자의 경우도 비슷한 조건들이 있  
 습니다.

- 외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고

- 이 외국거주지를 당장 포기할 의도가 없  
 어야 하고

- 목적인 학업이 끝나면 미국을 떠날 의도  
 가 있어야 한다.

간단해 보이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세히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  
 리면 위 조건들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것입니  
 다. 따라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주관적  
 으로 판단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  
 니다. 아주 오래 전 저도 서울 주재 미국 영사  
 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았었습니다. 상급학교로  
 옮기고 방학을 마치고 학생비자를 갱신하러  
 미영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지금 어디 사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보

스톤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자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네가 제출  
 한 주민등록등본의 너의 주소는 서울인데 왜  
 미국에 산다고 거짓말 하나' 그리고 '넌 한국에  
 살지 않으니 비자를 못주겠다' 는 정말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에 살면서 어떻  
 게 미국에서 공부하냐' 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났  
 습니다. 분명히 신청서에 이미 학생비자를 가  
 지고 있고 학교를 옮기게 되서 다시 비자를 신  
 청한다고 밝혔고 그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이런 식으로 사람  
 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황당한 대답을 들으니  
 말이죠. 그 순간에 정말 정이 툭 떨어졌습니다  
 . 정말 다시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화끈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미  
 국에서 공부 중이니 미국에 살고 있다고 답한  
 것이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곳이 내가 진짜 사  
 는 곳이고 공부 끝나면 붙잡아도 돌아온다' 라  
 고 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운이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감히 비자사정관 앞에서 버  
 릿없이 그런 말을... 그랜 법을 몰랐지만, 제가  
 한 답변에 우연히 정말 우연히 위의 모든 조건  
 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거주지가 있고 그 거주  
 지를 포기 안 할 것이며 학업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조건들 말입니다. 다행히 비자를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이  
 니 이런식으로 화끈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기 바  
 랍니다. 하지만, 정중히 반박하는 것은 중요하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중히 하셔야 합  
 니다.

이런 식의 주관적인 잣대를 반박할 수 있는  
 길은 되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많은 자료  
 를 제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자세  
 히 보시면 많은 조건들이 반드시 그래야 한다  
 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보  
 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에 말씀드린 학  
 생비자 조건들 중 하나인 '학업이 끝나면 본국  
 으로 돌아올 의도가 있어야 한다'도 반드시 돌  
 아온다가 아니라 돌아올 의도가 있어야 한다  
 입니다. 비자 신청 당시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냥 '학업이 끝나고 돌아올 겁니다' 라  
 고 답하시는 것보다는 '학업이 끝나면 한국에  
 서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가 나올 것이고 '학업  
 이 끝나면 xxx회사에 취업을 할 것이다' 라고  
 더 자세히 사항들을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  
 니다.

214(b) 로 비자를 거부당하면 원칙적으로 예  
 외조항이나 waiver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번 214(b) 로 비자를 거부당한다는 것  
 이 차후 모든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확실합니  
 다. 왜냐하면 214(b) 거부자의 차후 비자 신청에  
 는 신청자의 신변이나 주위환경이 많이 바꿨  
 기 때문에 이제는 이민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고 객관적인 자료와 인터뷰  
 시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세분적인 대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  
 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강력 추천품!**

**강원도 우수 농수산물전**

**시골장터**

천연인슐린 성분 함유 "여주"로 부작용 없이 당뇨 관리하세요.

당뇨 및 혈관질환에 특효한 "여주"

저온숙성 기술로 만들어서 몸에 좋은 "여주"를 쓰맛없이 즐겨주세요

교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장소 : 뉴릴라이어블 마켓**

45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TEL. 617-623-9620

**행사기간 : 10월30일(금) ~ 11월1일(일) 3일장**

**앵콜! 강원도 농수산물 전시 판매**

★ 행사문의: 732-513-4369 ★

<p><b>갯갈류</b></p> <p>명란젓, 창란젓, 조개젓, 어리굴젓, 가지미 식혜, 낙지젓, 갈치숙젓, 새우젓, 명게젓, 오징어젓, 황태회무침</p> 	<p><b>반찬류</b></p> <p>무말랭이, 고들빼기, 도라지 무침, 더덕무침, 매실장아치, 양념깻잎, 양념고추, 된장깻잎, 된장고추, 마늘쫑, 방계무침등</p> 	<p><b>나물류</b></p> <p>취나물, 곤드레, 부자쟁이, 건도라지, 토란대, 표고버섯, 무청시래기, 무말랭이 등</p> 	<p><b>멸치류</b></p> <p>다시멸치, 볶음멸치, 지리멸치, 멸치국물용 가루</p>	<p><b>떡종류</b></p> <p>강원도 오색감자떡, 횡성 명물 안흥 찜빵</p>
<p><b>건어물</b></p> <p>황태포, 황태채, 북어채, 황태머리, 흥진미채, 마른오징어, 전새우, 노가리등, 가문어, 디포리, 변건조오징어</p> 	<p><b>해초류</b></p> <p>참미역, 다시마, 미역귀, 들자반 김, 김밥용 김, 즉석구이 등, 말린 톳</p> 	<p><b>생선류</b></p> <p>참굴비, 손질한 가지미</p> 	<p><b>기타</b></p> <p>잡쌀떡과, 100% 표고버섯가루, 100% 다시마가루, 100% 도라지가루, 당뇨에 아주 좋은 말린여주차, 도라지즙, 산수유즙, 옥마늘즙, 배즙, 취즙, 양파즙</p> 	
<p><b>건강식품</b></p> <p>도라지 100% 진액, 겨우살이, 삼계탕용 재료, 황기, 당귀, 산수유, 오미자, 매실원액, 100% 산약마가루, 당뇨에 좋은 개똥썩</p> 	<p><b>장류</b></p> <p>고로쇠 국간장, 청국장, 다시마 국간장, 참기름, 들기름</p> 	<p><b>잡곡</b></p> <p>메밀묵가루, 메밀부침가루, 메밀국수, 은행마죽, 벼싯디떡마죽, 들깨가루, 엿기름, 엿</p> 		

# 탐 브래디, 앞으로 10년은 더 뛰고 싶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츠의 스타 쿼터백 탐 브래디가 풋볼에 대한 자신의 희망사항을 밝혔다. 앞으로 10년은 더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브래디는 21일, 뉴욕 기자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난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경기를 하고 싶다. 아마 10년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미 30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든 브래디가 앞으로 10년 이상 풋볼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브래디 역시 이를 알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브래디는 "(선수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지금도 내가 계속 바라고 있는 것이다. 선수 생활을 오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히 나를 원하는 팀이 있어야 한다. 나는 풋볼 경기를 사랑하고, 동료들과 코치와 함께 풋볼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랫동안 계속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보스턴 헤럴드에 따르면 브래디는 지난 9월 23일 인터뷰에서는 앞으로 10년 이상 풋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

문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답했다. 어쩌면 지난 주 콜츠와의 경기가 브래디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었을 수도 있다고 헤럴드는 설명했다.

올해 38세인 브래디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쿼터백으로서의 실력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브래디는 이번 시즌에 1,699 패싱 야드(리그 5위), 14개의 터치다운(리그 공동 2위), 그리고 단 1개의 인터셉션만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당 340 패싱 야드를 기록 중인 브래디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인 쿼터백은 필립 리버스(353 야드)밖에 없다.

올해 들어 MVP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브래디는 패트리엇츠의 5승 0패, 전승가도를 이끌고 있다. 패트리엇츠는 올해 정규시즌 무패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네슨(NESN.com)은 브래디의 인터뷰와 함께 40대에도 풋볼 경기에 나섰던 쿼터백들에 대해 보도했다. 조지 블랜더는 1949년에 프로 풋볼 무대에 데뷔하여 무려 26시즌을 보냈다. 블랜더가 마지막으로 경기장에 나섰을 때의 나이가 48세였다. 브래디의 희망사항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네슨에 따르면 블랜더 외에도 워렌



38세인 탐 브래디는 올해 리그 MVP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

문, 비니 테스테버드, 스티브 디버그 등의 선수들이 44세까지 선수 생활을 계속했다.

브래디가 여전히 절정의 기량을 보이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엘리트 쿼터백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지만, 40세가 가까워지면 의외로 빠르게 실력이

저하될 수 있다. 브래디와 함께 10년 이상 최고의 쿼터백으로 비교되던 페이튼 매닝은 올해 들어 확실히 눈에 띄게 팔힘이 떨어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닝 덕분에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선보였던 브롱코스는 올해 들어 매닝의 부진과 함께 공격력도 떨어졌다. 매닝은

올해 39세다.

브래디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10년 동안 풋볼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리그 최고 수준의 쿼터백으로 10년 동안 남아 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jsi@bostonkorea.com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 10월 1일 2015년부터 시행 되는 새로운 법

아주 중요한 법이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벌써 2번이나 이법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받았습니니다. 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집을 사시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 글은 적용 되는 법을 한글로 보도한 글을 옮깁니다.

### 모기지 견적서 신청 3일내 발급

■ 소비자 보호 강화된 규정 10월3일 시행 각종 클로징 비용 투명한 공개 의무화 거래마감 공개서도 최소 3일 전 전달

모기지 용자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에게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s)를 제공하고 각종 클로징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방 규정 (TRID, Mortgage Disclosure Rules)이 10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TILA(Truth in Lending Act)와 부동산 조정절차법(RESPA)을 모

두 포함하는 것으로 모기지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이 주택융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쉽게 이해하고 수천달러에 달하는 추가비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새 규정에 따라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소비자로부터 모기지 용자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3일 안에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필리핀어 등 5개 국어 중 하나라도 된 대출 견적서를 용자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견적서는 총 3페이지 분량으로 용자금액, 매달 납입해야 하는 원금 및 이자, 예상 클로징 비용, 클로징 때 필요한 예상 현금액, 대출비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거주 비즈니스 감독국 사이트를 통해 대출견적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견적서는 모기지 용자 신청 직후 발급되는 용자비용 내역서(GFE)와 초기 대출 서류(truth-in-lending statement)가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된 것이다.

대출자는 견적서 내용을 검토한 뒤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출 신청 의향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대출 심사와정이 시작된다. 대출 은행은 용자 견적서가 발급되고 대출자가 의향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크레딧 리포트 발급비 외에 기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최종비용 내역서인 'HUD-1'과 최종 대출서류 역시 마감 공개서(closing disclosure)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통합됐다. 마감 공개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각종 항목의 최종비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서류로 역시 기존 서류에 비해 내용이 간략해 소비자들의 이해가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기관들은 주택거래 절차가 끝나기 최소 3일 전에 마감 공개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클로징 서류의 경우 주택 거래 마감 하루 전에 발급되는 것이 관행처럼 시행되어 왔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클로징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오류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CFPB 측은 "주택 구입자들의 복잡한 대출조건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며 "시행 초기 부동산 업계와 주택 구입자들이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규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A한국일보〉

###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 POSPay

worldpay

##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5%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틀,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드롭 보스톤서쪽(RT.2)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29,000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 아카데미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 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전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 2015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 기간: 11.21(토)~20(일)  
1. SAT I Class  
12월, 1월 시험대비 집중 프로그램  
-실전문제들이 중심의 수업  
-수업과 문제풀이의 총일 프로그램  
9:00-5:00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배분  
2. SAT II subject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3.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수업

### 학기중 주말 프로그램

• SAT I Class:  
1.기간: 9.05~1.16(2016)  
-4주 단위 등록  
-상시 등록가능  
-기술문제 풀이 중심의 집중코스  
2. 시간표  
9:00~12:00 실전문제풀이  
12:00~1:00 점심식사  
1:00~4:00 수업  
• SAT II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